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15
vol.134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www.chanel.com

THE CHANEL MOMENT

L'INSTANT
CHANEL



BVLGARI

ROMA

MONT
BLA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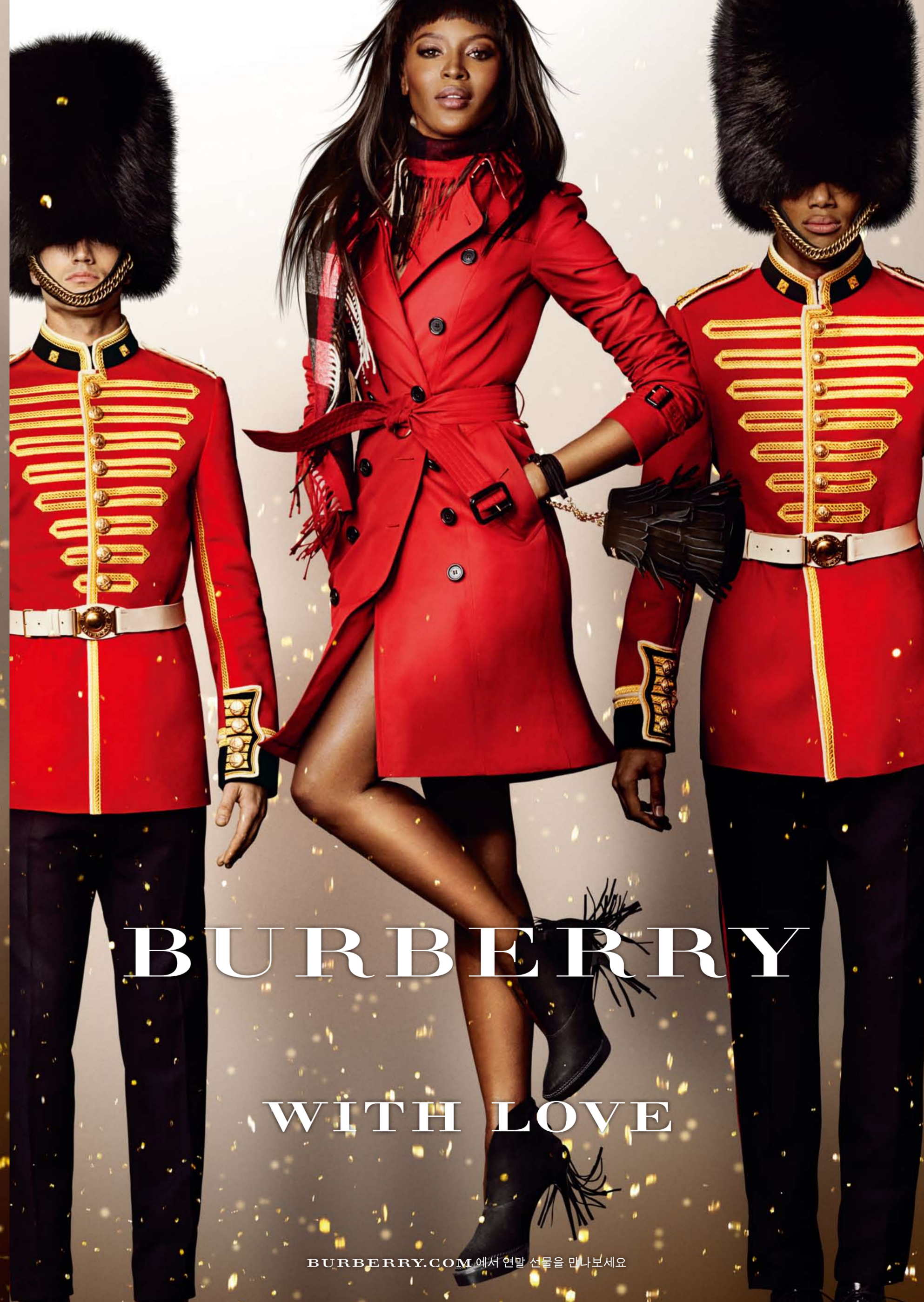
Montblanc M
and Hugh Jackman

몽블랑 M과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This new iconic writing instrument expresses Montblanc's fine writing culture in the distinctive design language of Marc Newson. The black precious resin and its minimalist understatement disguise some intriguing details. The unique magnetic closing mechanism automatically aligns the cap with the Montblanc emblem on the perfectly flat "plateau". In the launch edition, the Au585 gold nib bears the designer's initials. Visit Montblanc.com





BURBERRY

WITH LOVE

BURBERRY.COM 에서 연말 선물을 만나보세요



60

61

Style 조선일보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1백70년 역사의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Tiffany & Co). 2015년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로맨틱한 홀리데이를 완성 해줄 티파니의 베스트셀러 컬렉션 이미지다. 사랑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의미를 더 한 키 컬렉션을 비롯해, 디자인이 모던한 Tiffany T 컬렉션, 셀브래이션 링까지, 블루 박스에 담긴 아름다운 주얼리가 당신의 홀리데이를 더욱 아름답게 빛낼 것이다. 문의 02-547-9488



34



14

- 18 **FUKUTAKE SOICHIRO** '예술의 섬' 나오키마를 만든 후쿠타케 고문, 그 어떤 창조 도시 사례와도 다른 얘기를 들어본다.
- GIFT GUIDE**
- 20 **THE FASHION** for her, **THE FASHION** for him
- 24 **THE WATCH & JEWELRY** 28 **THE WATCH**
- 30 **THE BEAUTY** 32 **THE LIVING**
- 34 **FEEL THE WAVE** 배우 이희나가 토즈의 새로운 아이코닉 백 '웨이브'와 조우한 순간.
- 42 **DAZZLING EXPLOSION** 2015년에 만난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에뚜르디쌍 까르띠에(Étourdissant Cartier)'.
- 44 **TRUE DESIGN** <스타일 조선일보>가 미도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미도x브랜 워치 디자인 콘테스트'에 다녀왔다.
- 45 **ADMIT PERFECTION** 컬트와 불릴 정도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룬 리처드 밀, 그리고 주목해야 할 여성 워치 컬렉션.
- 46 **SENSUAL MOMENT** 나.모치의 관능적 아름다움을 담아낸 향수 '렉스타즈'가 새롭게 탄생했다.
- 47 **A DROP OF MIRACLE** '샤넬 수블리미지 렉스타즈'는 샤넬 뷰티의 정수다. 샤넬이 전하는 한 방울의 기적.
- 48 **REAL RECIPE** CNP차앤박이 피부 재생 크림 'CNP 닥터레이 DR.R2 리얼 마테카사사이드 크림'을 선보인다.
- 49 **EMBRACE SCENT** 부드러운 향의 선율과 함께 몽블랑의 변치 않는 가치까지 함께 전해줄 '엔블랑'과 '레이디 엔블랑' 컬렉션.
- 50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동안 애장해온, 혹은 새롭게 화장대에 추가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만 엄선했다.
- 51 **A BEAUTIFUL GIFT** 의미 깊은 선물을 하고 싶다면 사슬리의 베스트셀러를 눈여겨보자.
- 52 **WINTER CHIC** 몽클레르가 이번 시즌, 따뜻한 다운 재킷과 함께 감각적인 토털 룩을 완성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 54 **ONE AND ONLY** 랄프 로렌의 '메이트 투 오더 리키 백'이라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오직 나를 위한 가방'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 55 **STUD ATTRACTION** 시즌을 거듭할수록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발렌티노의 '리스타드' 컬렉션.
- 56 **TIMELESS SUITCASE** 여행은 모험이다. '모험 유전자'를 의미하는 7R에서 받은 영감으로 탄생한 하트만의 캐리어 '7R 마스터'.
- 57 **FRENCH ART DE VIVRE** 크리스털을 예술로 승화한 바귀라는 현재의 트렌드를 압축해 내일의 클래식을 창조하고 있다.
- 58 **ONE SHINY DAY** 스와로브스키의 뮤즈 미란다 커의 상상 속 첫 눈이 반짝인 것으로 가득한 크리스털이 되어 주말리로 피어났다.
- 59 **STYLISH COMFORT** 르꼬끄 골프가 겨울을, 가벼운 착용감과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세련된 프리미엄 구스다운 아우터를 제안한다.
- 60 **THE ESSENTIAL FOCUS** 전통과 참단의 조화로 고품질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는데 뜻한 라이카의 고품에 다녀왔다.
- 61 **IMBUED WITH ART** 일본 가가와 현에 있는 예술의 섬 나오키마 일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Style 조선일보

Issue.134 December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stylechosun.com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골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Escale Time Zone.

LOUIS VUITTON



**Jewel
DREAM OF PEARL'S**

판타지와 따뜻함, 아름다움과 순결함, 여성미의 절정, 진주 컬렉션.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옐로 골드에 화이트 마더오브펄을 세팅한 매직 일렉트릭 아이링, 옐로 골드 플 디아몬드 진주의 조화가 드러나듯한 데인저 펄 네크리스, 3백70만원대, 플 모티브에 이코아 진주 하나를 세팅해 심플하게 완성한 리파인드 라벨은 네크리스, 3백80만원대 모두 **타사피**, 최상급 담수 진주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 세팅 장공장사를 매치한 이그르프 펄 브레이슬릿 2천5백만원대 **카르띠에**, 별 모티브의 진주를 더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한 코페트 컬렉션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사펠린 주얼리**, 트라나티 링에 사이즈와 컬러가 다양한 진주를 세팅한 트라나티 링 링 4천만원대 **카르띠에**, 코페트 컬렉션 링 1천7백만원대 **사펠린 주얼리**, 에디터 **권유진**

모토: 그라피 박관주



**Fashion
PLUS WIT!**

클래식하면서도 유행을 잊지 않는 백 컬렉션은 이번 시즌에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스페셜 아이템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가방에 심음이 있다면 이미법 같은 타자의 힘을 믿어볼 것.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로 위 공사 현장 깃발을 모티브로 해 유행을 타한 양자족 토트백, 42X31cm, 2백99만원 **안야 힌드미치 by 본디산**, 상쾌하게 수놓은 꿀벌 지수 장식이 포인트인 GG 로고의 체인 백, 30X22cm, 4백66만원 **구찌**, 광채 반짝이는 블랙 & 화이트 미스 비브 캐주얼 스타일 백, 21X19cm, 3백30만원대 **로저 비비에**, 감각적인 레터링이 돋보이는 퀴유르 토트백, 36X31cm, 1천3백50만원대 **엘보**, LV 로고의 모노그램 캔버스와 아자수 프란트기 조화를 이룬 트윙스트 MM 백, 23X18cm, 4백80만원대 **루이 비통**, 그라피컬 인 타자를 다한 화살표, 토기 라스트가 유니크한 디아노 스타일 래빗 백, 23X14cm, 1백90만원대 **프라다**, 에디터 **권유진**

모토: 그라피 박관주



**Beauty
NEW TUBES**

모토: 그라피 박관주

크게 광고나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소리 없이 호황을 이루는 뷰티 시장이 있다. 저안 회사, 약사, 피부과 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해 일명 피부과 화장품이라 불리는 디오 코스메틱 브랜드다. 정해진 개념은 서로 다르지만 케팅고리를 더 좁혀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일부 성분들만을 다룬 화장품인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화장품(cosmetic)과 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 역시 예외의 상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매력은 합리적인 가격에 성분, 기술력, 효과를 믿을 수 있으면서 피부 치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 매력에 가장 잘 반영한 제품은 디오 코스메틱 브랜드에 관한 볼 수 있는 연고 타입 화장품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피부 연고인클이나 뛰어난 효과를 보정하는 디오 코스메틱 브랜드의 재생 크림을 소개한다.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디아 다림루+ 크림 레퍼리트리시스**는 외부 자극이나 건조함으로 손상된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연고 타입 크림. 항염, 진정, 보습 효과가 뛰어나 13개의 최소 성분만 함유, 4일 만에 영구히 완화되는 효과를 입증했을 만큼 뛰어난 효능을 보정한다(50ml 2만원). **이벤트 시애틀의 SOS 크림**은 피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벤트, 온천수를 45% 함유한 리페어 연고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 효과를 높인다. 특히 여름을 피고 난 부위나 붉어진 피부에 두껍게 피 바르면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진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0ml 2만2천원). **CNP 타사피 Dr.R2 리페어 마데카시드 크림**은 리페어 크림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마데카시드 성분을 기존 자사 제품에 비해 10배로 높여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의 빠른 재생을 도와준다. 또 마백과 주름 이종 기능성으로 주름, 기미, 탄력 등 피부 노화에 따른 잔잔한 고민을 완화해준다(50ml 5만5천원). **리모슈퍼제 시애틀리시스**는 병을 안에서 추출한 마데카시드 성분을 함유해 손상 피부에 집중 치유하는 연고 타입 크림. 공기 가 잘 통하는 텍스처가 피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민한 눈가, 입술 부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40ml 2만2천원). **스킨슈리드 에디터 리페어**는 민감한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 특수 개발한 프로페셔널 크림. 베타글루칸 성분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설페라시아미터 추출물이 피부 탄력 증진과 정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 얼굴 전체 혹은 오목되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사용하면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80ml 2만2천원). **비이오이아 시애틀 오포이드**는 피부과 시술, 자외선 등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개선하는 리페어 크림. 인텔리시어라는 독자적 성분을 더해 손상된 피부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자일루탄 성분이 강력한 보습 효과를 제공해 피부가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돕는다(40ml 2만2천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연말을 위한 특별한 'cheers!'**

만남이 많은 연말을 기념해 한껏 행사를 낸 각종 주류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축배를 위해서는 샴페인을 빼놓을 수 없을 터, 프리미엄 빈티지 샴페인의 제왕' 동 페리뇽은 2015년 연말 에디션으로 '창조의 힘을 강조한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세계적인 아방가르드 아티스트 비오코(Bioko)와 크리스 카닝햄, 2명의 크리에이티브가 빚어낸 작품으로 '땀에서 마음으로'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매혹적인 초록빛을 담았다. 이 협업에 사용한 샴페인은 동 페리뇽 빈티지 2006(30만원대)과 동 페리뇽 로제 빈티지 2004(50만원대), 연말 시즌을 기념해 나온 모엣&상동의 '소 버블리 버킷(So Bubbly Bucket)'과 기프트 박스는 부드럽고 상큼한 버블 텍스처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패키징 디자인이 돋보인다. 7만~8만원대,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 맥칼런에서는 국내에 1천 병만 들어왔다는 10만원대 한정판 맥칼런 에디션 넘버 원(The Macallan Edition No.1)을 내놓았다. 골차림 짙은 황금빛이 감도는 이 위스키는 세리 오크 통에서 비롯된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이 일품이다. 오렌지, 사과 등 향긋한 과일 향과 계피, 말린 생강의 알싸함, 바닐라와 토피의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우아한 품격과 생기를 갖춘 와인을 원한다면 탄생 30주년을 맞이한 '클라우드 베이' 소비뇽 블랑 2015를 눈여겨볼 만하다. 열성 팬이 많은 이 뉴질랜드 와인 브랜드의 소비뇽 블랑 2015년 빈티지는 경쾌한 느낌과 침이 고이는 산도가 특징이다. 5만원대. 맥주파에게는 영화 <07 스팹>을 내세운 하이네켄의 스페셜 에디션 '스팹' 캔이 반기를 수도 있다. 첼보 영웅 캐릭터의 대명사 제임스 본드와 18년간 이어진 글로벌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디자인이다. 에디터 **고성연**



모엣&상동

하이네켄

동 페리뇽

클라우드 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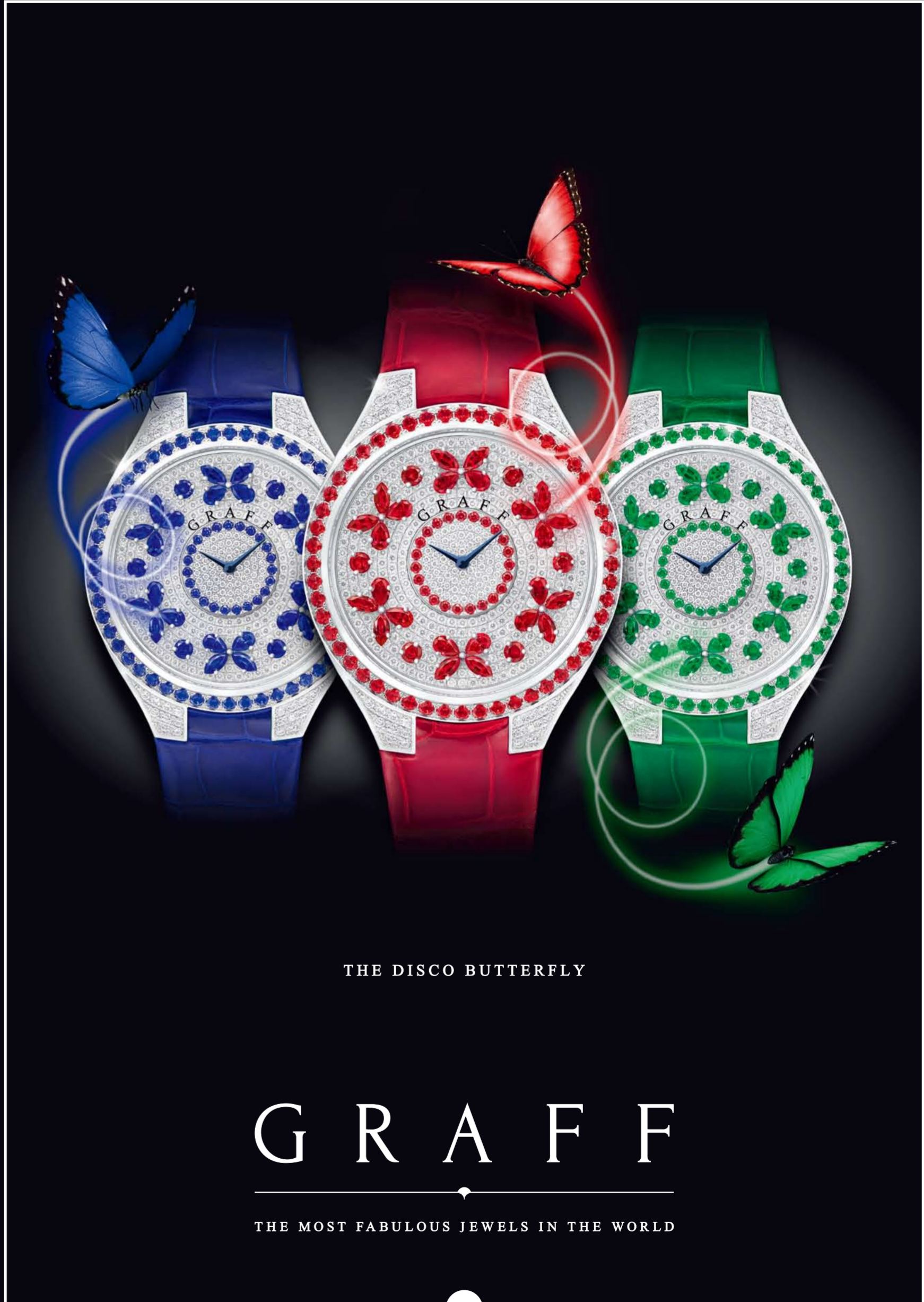
맥칼런



**Living
삶에 풍요로운 감성을 더해주는
라이프스타일 숍 열풍**

일상에 저마다의 감성과 개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붐'을 이루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성 넘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패션 브랜드 쿠론은 '여자의 집'을 주제로 한 라이프스타일 페어 '메종 드 쿠론(Maison de Couronne)'을 선보였다. 이트 작품으로 가구를 조명하기보다는 디자인과 실용성, 기능성을 두루 갖춘 조화를 염두에 뒀다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내외 디자이너와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민스크 김유진 대표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오브제와 홈이름 지어졌다. 특히 중국, 세르비아, 독일 등 국적이 서로 다른 디자이너 3명이 공진 아티스트 그룹 핀우(Pinwu)와 칼레베레이산해 탄생시킨 오브제 작품은 독특한 세련미와 절제된 감성으로 큰 호응을 이 끌어냈다. 분다산 창림에서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톰 디킨의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이 팝업 스토어는 분다산 창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팝업 매장으로, 톰 디킨이 빙한해 고객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두는 그만의 디자인 언어가 녹아든 조명, 가구, 향초, 주방용품, 문구류 등 폭넓은 제품군이 전시돼 있다. 특히 분다산 창림에서만 접할 수 있는 톰 디킨의 리미티드 에디션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 신시동 가로수길에 쇼룸을 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모더니크(Moderneque)도 밝게 라임 이모티비들 사이에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디터 **고성연**

톰 디킨 리미티드 에디션



THE DISCO BUTTERFLY

G R A F 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다양한 것들과
자수로 아름다운
꽃을 형상화한
미니드레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눈, 반개, 보석 등의
비즈 장식과 퍼, 앙사르
포인트를 장식한
21만8천원 모자.

화려한 프린지 비즈
장식을 더한 모자
1백39만원 황방.

크리스탈로 장식한 핑크
플러시 에메랄드 반지 2만원 마이엔
프러스트가 크라이 by 마이엔.

락차한 이가죽으로 만든 빈티지한 디자인의 언니 클러치. 26x15cm, 1천원대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레드, 그린, 투명한
크리스탈로 장식한 세
가지 컬러의 트리
가격 미정 바카리아.

핑크 컬러의 스텔링 실
50만원 루스티카 프라다
by 마이엔.

브로드 아슬린 V자형 장식한 골드 메탈 장식이
플러시 스텔링 실을 1백89만원대 루비 비앙.

ASPHALTE 유황청
아사시트 이세영, 김수민
에디터 권유진

빈티지하게 터치한
메탈릭한 표면과
크리스탈 클로저가
멋스러운 클러치.
16x10.5cm,
가격 미정
스외로브스키.

유리한 드레스의 곡선을
형상화한 고풍한 루비 이어링
가격 미정 디올 하이 주얼리.

스타드 장식의 스커어
프래임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라다 by 루스티카 프라다.

플러시 코팅의
크리스탈 주얼 브로치
60만원대 프라다.

스타드 장식의 스커어
28x21cm, 98만원 제미니

어깨의 프린지 디테일이 화려한 블루 체크 코트 2백78만원 파에르 발랑.

for her Selection

연말 파티 준비로 한껏 들뜬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섬세한 것들
장식을 더한 드레스, 반짝이는 스팽글 하이힐까지,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스페셜한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우아한 에그 셰이프의
상세한 케이스와 체인
브레이슬릿이 화려한
매력을 더한 라인드
네이플 프레스스 8998
원치 1억5천만원대
브레게.

위트 가득한 캐릭터
모티프가 돋보이는
다이어리 90만원대 안아
핀디샤시
by 분디샵.

거울처럼 반짝이는
골드 컬러로 탄생한
바오바오 토트백.
39x39cm, 1백15만원
바오바오.

- 데게 02-519-8123
- 발렌티노 02-2015-4653
- 루이 02-3446-8074
- 황방 02-6905-3582
-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 마이엔 02-6947-1270
- 분디샵 02-2056-1234
- 스외로브스키 1661-9060
- 루비 비앙 02-3432-1854
- 디올 하이 주얼리 02-513-0300
- 루스티카 프라다 02-501-4436
- 피에르 발랑 02-6905-3674
- 자황시 02-517-7560
- 프라다 02-3218-5331
- 바오바오 02-2231-6282
- 브레게 02-6905-3571
- 바카리아 02-3448-3778



캘리니얼 에비뉴 뉴욕점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가남점 신세계 북점 현대 무궁화역점 현대역점

CÉLINE



제리 매켄의 라본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패셔너블한 인형나. 패셔너블 by 10 프로스 코모.



클래식한 반올림 디자인의 안경 20만 원. 패셔너블 by 윌리엄 W.



벽화를 연상케 하는 앤트릭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소가죽 토트백. 37x32cm, 4백33만원. 지형사.



양관 패턴이 새겨진 블랙 베스트 가격 미정. 몰채안기바나.



화려한 골드 컬러를 장식한 디테일. 양구 스트랩 슈즈. 1백46만원. 주부랭.



룩시브 감성이 느껴지는 스타드 장식의 드레스 슈즈. 2백71만원. 크리스찬 루부랭.

for him Selection

마음껏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홀리데이 시즌. 이날만큼은 조금 과하거나 화려해도 좋다. 화려한 디테일로 중무장한 남성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파리 에펠탑의 아름다운 곡선과 사선의 매력을 모티브로 한 카렌더 크로노그래프 칼라버 60 워치. 2백51만원. 미도.



스팽글 알파벳 이니셜, 별모티브, 주얼 장식으로 우트를 더한 클러처. 28x14cm, 32만5천원. 톰 그레이하운드.



파리 에펠탑의 아름다운 곡선과 사선의 매력을 모티브로 한 카렌더 크로노그래프 칼라버 60 워치. 2백51만원. 미도.



체인 장식의 가죽 브라이언릿 33만5천원. 바티페데 by 톰 그레이하운드.



가진 텍스처가 느껴지는 스텔 아이스케이스 59만원. 라 벨라 by 분다삼.



신비로운 나비 패턴의 네이비 울 재킷 5백만원대 (재킷, 팬츠 세트) 발렌티노.



블랙 & 화이트 가죽 모티프. 39만원. 크리스찬 루부랭 by 10 프로스 코모.



시계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쿠르토스 링크. 1천2백만원. 분다삼.



꽃잎 프린트. 1백60만원. 크리스찬 루부랭. 27x38x30cm, 2백20만원. 주부랭.

- 구찌 1577-1921
- 윌리엄 W 02-522-4343
- 지형사 02-517-7560
- 주세페 지노티 02-543-1937
- 몰채안기바나 02-3444-0077
- 크리스찬 루부랭 02-6905-3795
- 톰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 분다삼 02-3444-3300
- 브라게 02-3438-6218
- 발렌티노 02-2015-4653
- 미도 02-3149-9599
- 파타리 02-3449-5922
- 부세르 02-3213-2246
- 10 프로스 코모 02-3018-1010

emporioarmaniswissmade.com - ARS 8200



EMPORIO ARMANI

SWISS MADE



interview

나오시마 섬의 기적을 만든 작은 거인

Fukutake Soichiro

이제는 멀리 유럽에서도 일부러 찾아온다는 ‘예술의 섬’ 나오시마.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던 일본 중부 가가와 현의 작은 섬마을이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후쿠타케 소이치로 고문이 이끄는 베네세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독심이 버티고 있다.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소외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현대미술을 곳곳에 심었다는 후쿠타케 고문. 그의 나이 불혹에 시작해 어느덧 거의 30년이 된 ‘재생 마을’ 스토리. 그 어떤 창조 도시 사례와도 다른 얘기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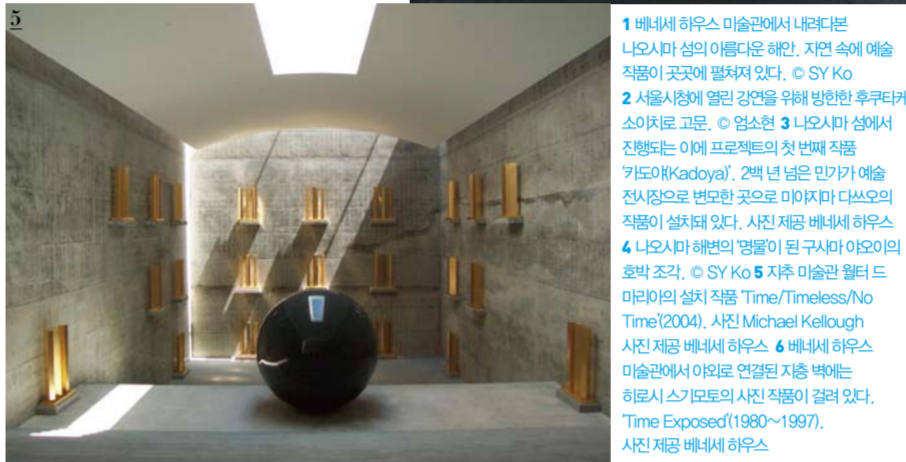
인구 3천 명 남짓의 외딴섬 나오시마. 이 한적한 곳에 해마다 섬 인구의 2백 배가 훌쩍 넘는 7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나오시마를 비롯해 데시마, 이누지마 등 인근에 자리한 3개의 세토내해 섬들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황홀하게 펼쳐진 대자연과 건축, 현대 미술이 어우러진 예술의 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오시마는 바다가를 배경으로 놓인 구사마 아오이의 ‘호박’ 시리즈,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지은 지추 미술관, 이우환 미술관,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 등으로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여행지다. 사실 나오시마는 1970년대에 제련소를 발전소로 바꾸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폐 유망한 여행지였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출판 기업 베네세홀딩스가 섬 전반을 문화촌으로 재생시키는 대형 프로젝트에 발 벗고 나서면서 환골탈태에 성공했다. 어찌서 한 기업이 그처럼 낙후된 곳을 예술로 재생시키고자 막대한 자금과 공을 쏟아부었을까?

“대학(와세다대 공대)을 졸업하고 도쿄에서 일하다가 베네세 창업주인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향이자 회사가 있는 오카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대도시의 긴장과 경쟁이 아닌 자연, 여유, 삶의 아름다움을 느꼈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나오시마에 캠프장을 짓고자 한 친친의 뒤를 이어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산업이 아닌 예술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사후 초청으로 방한한 후쿠타케 소이치로 베네세 그룹 고문(70)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의 나이 불혹에 시작한 나오시마 재생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개발’이 아니라 예술을 빚는 ‘공생’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그래서 섬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이 다소 훼손되는 일은 불가피한 희생이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경제적인 이익으로 보답받는다는 논리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대자연 속에서 문화와 더불어 잘 살기만 바랐다. ‘후쿠타케 퍼블리싱’이라는 회사명을 미술관 프로젝트 이름을 따라 잘(bene) 산다(se)는 의미의 베네세

(Benesse)로 바꾼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꿈꾸다

“처음에는 섬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미술관과 호텔을 지음으로써 섬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섬으로 만들 것이라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마을 주민들도 이해해주었어요. 비록 오래 걸렸지만, 모든 것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마을 사람들은 작품 제작에도 참여한다. 이름깨나 날리는 현대미술 작가들이 방문해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저 낯선 이가 왜 여기 왔지? 하는 식으로 순수한 호기심으로 대하면서, 점차 그들에게 밥도 차려주고 마을도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시작된다. 에컨대 나오시마에 있는 2백 년 된 전통 가옥을 예술을 담은 전시장으로 바꾸는 아에(家)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작가 미야자마 다쓰오는 마을 주민 1백여 명을 불러 모아 함께 설치를 진행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선조가 살던 옛집에 숫자판 작품을 심으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주인공이 됐다. 후쿠타케 부자의 바람대로 지난 30여 년 동안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술이 들어섰다. 일례로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돌담 위에 호박을 연상시키는 구사마 아오이의 예쁜 조각 두 점을 올려놓은 민가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구사마의 작품이 아니라도 그저 귀엽다는 생각이 사진을 찍노라면, 문을 열고 나서는 집주인과 마주친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짧지만 행복한 만남을 가진다. 후쿠타케 고문은 특히 노인을 강조한다. “섬에 남아 있는 노인들이 활기를 찾고, 얼굴에 미소가 들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작가는 떠나가지만, 작



1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에서 내려다본 나오시마 섬의 아름다운 해안. 자연 속에 예술 작품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 SY Ko
2 서울시장에 열린 공간을 위해 방한한 후쿠타케 소이치로 고문. © 임소현
3 나오시마 섬에서 진행되는 아에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품 ‘카도야(Kadoya)’. 2백 년 넘는 민가가 예술 전시장으로 변모한 곳으로 미야자마 다쓰오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사진 제공 베네세 하우스
4 나오시마 해변의 명물인 된구사마 아오이의 호박 조각. © SY Ko
5 지추 미술관 윌터드 마리아의 설치 작품 Time/Timeless/No Time(2004). 사진 Michael Kellough
6 사진 제공 베네세 하우스
6 베네세 하우스 미술관에서 아오이로 연결된 지층 밖에는 히로시 스기모토의 사진 작품이 걸려 있다. Time Exposed(1980~1997). 사진 제공 베네세 하우스



품 제작 과정을 관찰했던 섬 노인들이 다음 방문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작가인 양 여러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그는 이러한 참여 방식을 ‘나오시마 메소드’라고 부른다.

관광과 보존의 딜레마

이처럼 현지인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철학 때문에 방문객이 감수해야 할 부분은 있다. 나오시마 일대를 방문하면 기존의 관광지와는 사뭇 다른, 다소 느리고 갑갑할 수도 있는 스타일에 적응해야 한다. 영어도 잘 통하지 않고, 미술관에 들어갈 때면 작품 관람 지침만 10여 분간 들어야 하며, 관광 서비스 인프라도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3년마다 나오시마 일대에서 열리는, ‘동양의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일컬어지는 예술 축제인 세토우치 트리엔날레가 열렸을 때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불랑스키의 작품을 보려고 날마다 100m도 넘는 줄이 서기도 했던 데시마 해변. 횡집이 늘어설법도 한데 가게 하나 찾아보기 어렵다. 작은 식당 주인들은 단체 예약을 신청하면 몹시 난처해하며 다른 식당을 소개해준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식당 문을 열기 시작한 단계이다 보니 단체 손님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데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른 곳으로 손님을 분배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오시마에 있는 택시는 오로지 한 대. 방문객 수요를 감안하자면 차량 수를 늘리고 직원을 돌봐도 한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말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덕분에 어제 탔던 택시가 지나가자 왓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게 되고, 택시 아저씨도 함께 반가워하며 차 안에 우산을 두고 내렸더니 창문을 열고 전해주고 간다. 나오시마를 한문으로 쓰면 直道. 이 마을 사람들이 워낙 정직하고 순수해 임금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일화가 자아내는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다. 후쿠타케 고문 또한 “마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부 방문객들이 마

을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가운데 만남이 이뤄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나오시마 일대의 섬들이 관광과 개발이라는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느리게 사는 삶의 여유를 만끽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제인스 터렐은 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에 작품 제작 단계에서부터 “느림을 집어넣었다. 작품 관람에만 무려 15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작가는 반문한다. “여기가 지 와서 15분 더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예술이 종교를 대체하는 곳, ‘가외이문화’는 없다

나오시마를 다른 문화 재생 도시와 구분 짓는 또 하나의 특징은 ‘콘텐츠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그림으로 장식한 가외이 스타일의 귀여운 벽화가 아니라, 난해하기 일쑤인 현대미술이 주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진실을 말하는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다시 말해 ‘정신성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이 모여 있다. 히로시 스기모토의 아에 프로젝트 작품인 고오 신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본래 이 지역에 남아 있던 사당에 크리스털 계단을 만들어 지하 세계까지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길을 비추는 하늘의 빛은 깨달음의 여정을 보여준다. 지추 미술관은 각각 모네, 제인스 터렐, 윌터드 마리아의 작품을 모신 계단처럼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모네의 작품을 전시한 여러 미술관 중에서도 이곳의 분위기가 독특한 것은 오로지 자연광에만 의지한 안도 다다오 건축의 신비로운 빛의 움직임과 70만 개의 대리석을 2cm 사이즈로 깎아 넣은 바다의 구멍 덕분이다. 그림 한 점, 조각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데시마 미술관은 또 어떤가. 바람의 방향, 물방울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모든 정신을 기울이며 세상의 반향을 엿을 수 있는 치유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본래 섬은 자연의 위력 앞에서 약한 인간의 존재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곳이라 종교가 발달한 경우가 많다. 특히 나오시마 섬이 있는 가가와 지역에는 승려들의 성지순례 여행이 이어질 정도로 절이 많다. 후쿠타케 고문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작품 선정에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선친은 대단한 예술품 컬렉터였고, 저도 어릴 때부터 미술과 함께 자랐지요. 예술의 명상적이고 철학적인 면을 존중하기 때문에 귀엽고 예쁜, 장식적인 그림은 배제하고, 미술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싶었습니다. 또 자연과 함께하는 예술이라는 콘셉트 아래 대지 미술 작품을 다수 선택했지요.” 특히 그는 산업적 폐해가 많았던 시골 마을에 현대미술을 보여줌으로써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길 바랐다고 했다. “현대사회에는 많은 문제와 모순이 있고, 현대미술에는 그 문제를 예술로 표현한 작품이 많으니까요.” 제련소를 미술관으로 바꾼 이누지마 세이렌쇼 미술관은 후쿠타케 고문의 설명에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다.

경제가 문화 위에 있지 않고, 문화에 종속돼야 한다

그의 신념이 통한 것은 이 모든 아트 프로젝트가 철저히 베네세 그룹의 후원으로만 이뤄진 덕분일지도 모른다. 민간 활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라의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덕분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네세 그룹을 세운 후쿠타케 가문은 회사 자본 24.5%, 별도로 운영되는 후쿠타케 재단은 회사 자본 6.35%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배당을 받는다. 후쿠타케 가문은 후쿠타케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후쿠타케 가문의 열망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년 후쿠타케 가문이 재단에 기부하는 금액은 연간 5억엔, 한화로 50억원 규모다. 이와 별도로 베네세 아트사이트(나오시마, 데시마, 이누지마 섬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외 전시장을 통칭한다)의 운영 수익(입장료와 아트 상품 판매 수익 등)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70억원 규모다. 따라서 연간 1백20억의 예산으로 인건비, 작품 구매 등 미술관 운영 비용을 충당한다(공의 재단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30~40%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면제받는다). 후쿠타케 고문은 이처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가리켜 ‘공익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는 나오시마가 속한 가가와 현을 비롯해 주변 지역의 협조를 받아 개최된다. 하지만 그 역시도 베네세의 주도도 이뤄졌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나오시마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취소되자 후쿠타케 고문이 직접 편지를 썼고, 이에 고이즈미 총리가 지역 진흥회를 편성하면서 가가와 현 전체를 관통하는 예술 진흥이 시작된 것이다. 나오시마 섬으로만 몰리는 관광객을 주변 섬으로도 분산하고, 나오시마 섬에서 이룬 기적이 다른 섬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예술 축제는 세토내해 주변의 섬 10여 곳에서 약 1년에 걸쳐 봄(3월 20일~4월 14일), 여름(6월 18일~9월 4일), 가을(10월 8일~11월 6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2016년부터는 일본어, 영어 외에도 한국어, 중국어(2종류) 등 총 5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이토록 치밀하고 바지런하게 움직여왔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일까. 후쿠타케 고문 역시 자신이 해온 일을 현대미술을 무기 삼아 싸우는 헤지스탕스의 활동에 비유하면서 기업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나 지역 정부가 잉여 자본으로 숙제를 하듯이 문화를 채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문화를 우선순위로 뒤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경제를 모든 것의 우위에 놓고 있지만, 그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경제는 문화에 종속돼야 합니다.” 개발이 된 명목으로 섬을 ‘소비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해 있어야 할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공생하는 것, 아마도 이것이 바로 나오시마의 기적이 주는 가르침이 아닐까. **SY** **클** **강** **에** **이** **안** **이** **트** **칼** **텔** **대** **포**

for her THE FASHION

너무 고민할 것 없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아이템이 바로 여기 있으니, 각 브랜드에서 추천하는 연말 선물 아이템을 모았으니 더욱 믿고 구매해도 좋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우아한 A라인의 양털 트림링 구스 패딩 2백38만원
파비아나 밀라피, 문의 02-6960-0771



멋스러운 초콜릿 컬러의 스웨이드 소프트 리키백, 27X20cm, 2백23만원
탈프 로렌, 문의 02-545-8200



스웨이드로 만든 발목의 밴딩 디테일이 멋스러운 페이턴트 스튜디오 앵글부츠 1백60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위부터) 스타드 장식의 미니백, 18X14cm, 63만원 DVF, 문의 02-3442-7114, 베이시한 화이트 스가죽 스니커즈 21만원천원 슈콜리보나, 문의 02-511-1888



(위부터) 사랑스러운 하트 프린트를 더한 캐시미어 스카프 86만원 바버리, 문의 03-3484-6600, 블루, 버건디 니트 모자 각 19215천원, 레터링 브라운 니트 장갑 8215천원 모두 더 캐시미어, 문의 02-3416-4394



포근한 양털로 만든 컬러 블록 파카부백, 37X22cm, 7백47만원 맨디, 문의 02-2056-9023



니트 같은 짜임 디테일이 유니크한 벨트 장식의 여성 스기 웨어 스타일 구스 패딩 2백49만원 몽클레르 그레노블, 문의 02-514-0900



(왼쪽부터) 레트로풍 골드 프레임 선글라스 30만원대 글로에 by 다리F&S, 보잉 선글라스 30만원대 자더엔테르 by 다리F&S, 문의 02-513-2380



(왼쪽부터) 아름다운 천연의 눈꽃송이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아몬드 컬렉션 네크리스 46만원, 이어링 16215천원, 브레이슬릿 2121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에디터 베미진, 권유진

스타일링: 유원정, 어시스팅: 이혜원, 김수현

18 29
DELVAUX

Magritte
Exclusive Collection



FROM THE KINGDOM OF BELGIUM

델보 현대 압구정 본점
02 3449 5916

델보 갤러리아 EAST
02 6905 3709

델보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346

www.delvaux.com

for him THE FASHION

유행을 타지 않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실용성, 합리적인 가격, 남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센스까지 두루 갖춘 아이템이말로 선물하기 좋은 일순위 리스트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남성 선물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론) 왕관을 쓴 해골 모티브가 위트 있는 지갑 67만원, 고대 벽화를 연상케 하는 프린트의 카드 지갑 37만원 모두 **자형시**, 문의 02-517-7560 따뜻하고 도톰한 울 소재 타이 16만5천원 **타임 울모**, 문의 1600-5700



단독으로 착용해도 부드러운 핑크 모티브의 라운드넥 니트 31만8천원 **만상웨어**, 문의 02-2007-8584



그레케이션 차림한 다크 그린 컬러가 멋스러운 레이스업 슈즈 1백30만원 **발리**, 문의 02-3467-8935



그레픽적인 터치를 더한 레더링 프린트가 강인한 니트 1백65만원 **다들 울모**, 문의 02-513-0300



클래식한 디자인의 패딩 카디건 69만8천원 **몬테고레**, 문의 02-795-4133



양털 소재로 유니크함을 더한 백팩, 33X43cm, 52만원 **람방스포츠**, 문의 02-3438-6252



천연 메리노 울 소재를 가공해 통기성이 뛰어나고 착용감이 가벼운 테크메리노 라이트 스니커즈 61만원대 **Z 제너**, 문의 02-546-6287



고급스럽고 세련된 캐주얼 컬러의 배지티를 텐 레더 아슬본 브리프케이스, 40X29cm, 1백19만원 **하트만**, 문의 02-514-9006



화이트 코튼 셔츠 82만원, 토틀 패턴의 울 타이 35만원 모두 **브리오니**, 문의 02-3449-5396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스타일링: 유원정, 헤어: 이영민, 진수빈



라코스테 디지털 플래그십 Lacoste.co.kr

LIFE IS A BEAUTIFUL SPORT **LACOST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즈 골드 밴드에 핑크 컬러 유색석을 세팅한 핑크 퀴츠 링 2백77만원, 이탈리아 남부 카프리 섬에서 영감을 받은 카프리 크리소프레이즈 펜던트 2백93만원, 그린 컬러 유색석을 세팅한 마마논 마마 페리도트 링 1백77만원, 수채화 빛깔의 블루 토파즈가 아름다운 콜포디올리네 관련 블루 토파즈 링 2백99만원 모두 포벨리노, 문의 02-3213-2260, 여성의 관능미를 돋보이게 하는 디바 컬렉션 레드 코발리안 링 2백만원대, 핑크 골드에 블루 마블을 매치한 비, 제로원 링 1백만원대, 레드 코발리안 펜던트와 블루 라피스 네크리스 각 2백만원대, 핑크 골드에 코랄을 세팅한 브레이슬릿 각 2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문의 02-2056-0172



(왼쪽부터) 품격 있는 오토매틱 워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씨마스터 이쿠아테라 레오 디스 8백만원대, 커피 워치의 클래식한 씨마스터 300 워치 7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2143-7266

Gift Guide
THE WATCH & JEWELRY

컬러풀하고 사랑스러운 주얼리와 평생을 기억할 커플 워치로 완성하는, 연말을 위한 사랑의 증표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45mm의 파워가 느껴지는 볼드한 케이스에 담긴 크로노그래프 기능의 완성도가 매력적인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티타늄 강골드 1천9백만원대,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에 블랙 다이얼의 강렬함을 담은 클래식 퓨전 티타늄 9백만원대 모두 위블로, 문의 02-2118-6208



(오른쪽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파니 T 다이아몬드 스마일 미니 펜던트 2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T 다이아몬드 와이어 링 2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옐로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쿼트르 밴드 6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드롭 모티브 배행 보행 옐로 골드 스퀘드 이어링 8백만원대, 파르 체인 브레이슬릿 6백만원대 모두 부세온, 문의 02-3213-2246 스위트 알함브라 뉴 컬렉션 다이아몬드 파베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핑크 골드에 브랜드 로고를 인그레이빙한 배틀리 시그니처 링 2백70만원, 핑크 골드 스위트 알함브라 뉴 컬렉션 링 2백60만원, 레드 컬러 카날리언을 세팅한 매직 알함브라 통 네크리스 6백60만원대, 핑크 골드 배틀리 브레이슬릿 5백70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문의 00798-852-16123

소원이 이루어질 시간이다.

티쏘 슈랑 데 투렐 레이디 오토매틱
당신의 소중한 순간이 담긴 시간
스위스 시계 제작의 본고장 르로골을
이름으로 삼은 특별한 시계.
슈랑 데 투렐은 최대 80시간 동안 작동되는
파워매틱 80 무브먼트,
마더 오브 펄 다이얼,
투명한 케이스백을 갖추고 있다.



T + TISSOT THIS IS YOUR TIM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독특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티파니 이스트 웨스트 워치,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4백만원대, 영원을 의미하는 인피니티 링 옐로 골드 1백만원대, 매듭을 형상화한 더블 노트 크로스 링크 70만원대, 스틸링 실버로 볼륨감 있게 완성한 I, D, 브레이슬릿 40만원대, 인피니티 링 로즈 골드 1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깃털에서 영감을 받은 옐로 골드 풀플 링 3백만원대, 파리 방돔 광장의 팔각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케이스 사이즈 28mm의 프리미에르 워치 5백만원대, 화이트 세라믹과 블랙 세라믹으로 동백꽃을 표현한 네크리스 각 5백만원대, 사물의 아이코닉 컬러 패턴을 적용한 코코 크러쉬 스톤 링 2백만원대, 남성과 여성 모두 착용할 수 있는 올트라 미니 밴드 블랙 1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문의 02-3442-0962

Gift Guide

THE WATCH & JEWELRY

소중히 간직할 클래식한 위치와 순간을 기억할 모티브가 되어줄 주얼리가 함께하는, 연말을 더 화사하게 장식할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스 PM 스틸 버전, 스틸 케이스에 브랜드 고유의 질감을 담은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다. 3백8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3448-0728, 최상급 남양 흑진주를 세팅한 밸런스 에라 링 2백60만원대, 상어의 이빨에서 영감을 받은 이어커프 2백20만원대, 식물의 가시에서 영감을 얻은 손조 칼렉션 1백10만원대, 최상급 이코아 진주를 골드 바에 그네처럼 세팅한 밸런스 플러스 네크리스 2백50만원대, 모두 타사키, 문의 02-3461-5558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의 새로운 시그니처가 된 폴레 드 까르띠에 워치 9백70만원대, 블랙 옻칠을 세팅한 링 2백90만원대, 옐로 골드에 마디오브팔을 세팅한 링 2백90만원대 모두 아폴레드 드 까르띠에 컬렉션, 손가락을 두 번 휘감는 뜻의 형상을 표현한 유니크한 자스트 앵글루 더블 링 5백20만원대, 레드 카탈라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 2백50만원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7백50만원대, 모두 아폴레드 드 까르띠에 컬렉션, 모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SWAROVSKI.COM



Collection designed with Miranda Kerr

NECKLACE ₩330,000
EARRINGS ₩165,000
WATCH ₩460,000
BRACELET ₩185,000
RING ₩270,000

SWAROVSKI



THE WATCH

어렵지만 까다롭게 선택한 선물하기에 그 정성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게 할 워치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데마 피게 레이다 로열 오크
3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이트 엘라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순수한 느낌을 주는 하이엔드 워치. 1천7백만원대. 문의 02-3449-5917



에거 로블트르 라베르스 클래식
케이스를 손으로 살짝 밀면 인그레이팅된 뒷면을 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워치. 메시저를 새길 수도 있다. 34mm 스틸 사이즈 9백만원대. 문의 02-3213-2236



파르미자니 톨다 메트로 클래식
유려한 디자인의 롤백을 모양 라그가 풍격을 대변하는 클래식 워치. 인하우스 무브먼트 PF315를 장착한 크로노그래프 워치로, 시계 매니아는 물론 남다른 품위를 원하는 이에게 제격이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310-1737



론진 미니
케이스 사이즈가 16mm에 불과한 미니 워치. 마더오브밀 다이얼과 42개의 다이아몬드 세팅, 갈라놓은 스트랩으로 여성미를 강조한다. 1백만원대. 문의 02-3149-9532



태그호이어 까리다 레이다 칼리버 9
28mm의 심플한 사이즈에 다이아몬드 인덱스, 블랙 다이얼이 우아한 시그니처 디자인. 오토매틱 워치로 백 케이스를 통해 칼리버 9 무브먼트의 매력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3백만원대. 문의 02-776-9018



몽블랑 보렘 데아엔나잇 오토매틱
34mm의 실용적인 케이스 사이즈에 클래식한 기묘세 패턴, 아르비소쉬와 아우리진 다이아몬드 인덱스는 물론 가장 인상적인 데아엔나잇 인디케이터와 6시 방향의 데이트 창까지, 클래식 워치의 매력적인 요소를 모두 담은 디자인이다. 3백80만원대. 문의 02-2118-6053



해럴던 레인로드 레이다 퀵스
실용적인 사이즈의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여성스러운 워치. 네이비 컬러 레더 스트랩이 포인트가 되어준다. 79만원. 문의 02-3149-9583



미도 카멘더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60
사회생활의 시작을 더 멋지게 빛나게 해줄 실용적인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 워치. 스틸 소재의 브레이슬릿과 골드빛이 감도는 다이얼이 매력적이다. 2백51만원. 문의 02-3149-9599

블랑팡 우먼 클래식 올트라 슬림
레드 골드로 완성한 인체적인 베젤과 로인 인덱스, 브라운 엘라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한 클래식 워치. 2천2백만원대. 문의 02-3467-8426



Montecore



Holiday Limited Edition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리앙스 더 에센셜 아이 팔레트 컬러 기미 컬러 세트로 구성된 아이 팔레트, 6만 원대. **다움 홀리데이 꾸뛰르 컬렉션** 꾸뛰르 크리에이션 팔레트 페이스 파우더, 블러시, 어셋까지 총 4개의 아이세도, 두 가지 립 컬러를 담은 유인원 팔레트, 10만 원대. **통 포드 뷰티 립 컬러 매트 파스트 타임** 워터하고 관중적인 메이크업 특을 완성해줄 부드러운 컬러 립스틱, 3g 6만 원대. **결랑 오르 에 베르베이 팔레트** 다섯 가지 세토와 네 가지 컬러 블러셔로 구성된 팔레트, 11,9g 11만 원대. **샤넬 루주 두블로 영랑시메** 선명한 립 컬러와 투명 글로스가 하나에 담겨 있는 듀얼 립 제품, 3.1g 4만 원대. **헤라 M&D 클라보 루즈 홀릭** 패션 디자이너 미르코 & 디에고와 함께 만든 사랑스러운 패셔너의 립스틱, 3.3g 3만 원대. **나스스타브 클라임 치크 팔레트 디스커이** 포토그래퍼 스티븐 클라임의 다양한 포토그래머를 다룬 패셔너의 치크 팔레트, 9만 원대. **인생로랑 루주 베크 꾸뛰르 키스 & 러브** 립스틱 사랑스러운 키스 마크를 새긴 립스틱, 각 3.8g 4만 원대.



Prestige Cosmetics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뉴트리션 언더미트 다이아몬드 스킨프팅 리프트 상 유입 인퓨전 진주와 펄 다이아몬드 트라피움 함유 두 가지 코팅이 피부에 광채와 탄력을 주는 세럼, 25ml 6만 원대. **헤라 시그니피칸트** 장인 손으로 정교하게 완성된 울트라 펄을 가진, 미세하게 도출되는 인투에이징 크림, 30ml 23만 원. **인생로랑 오우즈** 바닐 오우즈 GFC™ 생인 유, 탄력 차질 차단, 건조함 등 11가지 피부의 궁극적 해결책인 항노화 인퓨전 피부로 바꾸는 세럼, 30ml 22만 원대. **샤넬 수블리마시스트** 그린 다이아몬드, 비탈과 블레디움과 이 성분 함유로 피부 재생에 특별한 효능을 발휘하는 오일, 15ml 63만 원대. **이모레피시프 프라임 리저브 에디디션** 피부 재생을 위한 한 해에 오직 1%만 생산되는 귀중한 그린 리저브 함유를 함유하며, 생인 유로 변화한 피부의 노화까지 개선하는 안티에이징 크림, 50ml 75만 원대.



포르쉐는 Mobil 1을 권장합니다.

www.porsche.co.kr

Gift Guide

THE BEAUTY

수많은 코스메틱 중 어떤 아이템을 선물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아름다운 홀리데이 에디션부터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스킨케어 제품과 향수까지,
성공적인 선물을 위한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아름다운 선물을 위한 뷰티 셀렉션

Best seller for Skincar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 에르 더 리뉴얼 오일 세로 발효 활성을 담아 피부 깊숙이 풍부한 영양을 전달하는 리차리 인티에이징 오일, 30ml 29만 원대. **성화수 윤조 에센스**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윤기를 되찾아주는 한방 부스팅 에센스, 60ml 9만 원대. **라프라이 셀부라 세럼** 홀리데이 레어 고귀한 유이 함유된 성분으로 피부를 탄력 있게 바꾸주는 인티에이징 세럼, 30ml 9만 원대. **클리앙스 더블 세럼** 유수분으로 보습한 혁신적인 텍스처가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세럼, 30ml 12만 원. **SK-II R.N.A 파워 크림** 피부 리듬을 회복해주는 눈송이 페탈™과 R.N.A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 50g 13만 원대.



Signature Perfumes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세르 라보르 맨 우디 아로마틱 오리엔탈 계열의 파워풀한 향이 돋보이는 남성 향수, 100ml 12만 원. **프레쉬 프래그런스** 제니 라이프, 에스페리테스, 그레이프루프, 브라운 슈가 오드 파뎀 등 3종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세트 향수, 15ml X 3개입 8만 원대. **프라다 레스 인퓨전 디 프라다** 아미스 선뜻하고 가벼운 꽃향기를 담은 빈티지한 보틀 디자인의 여성 향수, 50ml 13만 원. **다움 스킨유** 아로마틱 계열의 시트러스와 우디 향이 만나 관중적이고 섹시한 향을 발산하는 남성 향수, 60ml 9만 원대. **헤라 베리, 결랑 오르**



모두를 뛰어넘는 유일한 가치.
앞서가는 리더를 위한 단 하나의 존재.

파나메라는 이것을 에디션이라 부른다.

**Take the Lead.
The Panamera Edition.**

-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Panamera Edition Diesel 120,600,000원 배기량 2,967cc, 자동 8단 팁트로닉 S, 도심연비 9.8km/L, 고속도로연비 14.7km/L, 복합연비 11.5km/L, CO₂ 배출량 및 등급 175g/km 4등급, 공차중량 2,070kg.
Panamera Edition 4 122,300,000원 배기량 3,605cc, 자동 7단 PDK, 도심연비 7.0km/L, 고속도로연비 10.7km/L, 복합연비 8.3km/L, CO₂ 배출량 및 등급 215g/km 5등급, 공차중량 1,89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포르쉐 차량 시승 및 문의는 공식 포르쉐 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포르쉐 센터 대구 02.2051.0911 / 포르쉐 센터 서초 02.440.0911 / 포르쉐 센터 분당 판교 031.729.0911 / 포르쉐 센터 분당 서현 031.735.0911 / 포르쉐 센터 일산 031.813.0911 / 포르쉐 센터 인천 032.450.3000
포르쉐 센터 대전 042.862.0911 / 포르쉐 센터 대구 053.768.0911 / 포르쉐 센터 광주 062.526.0911 / 포르쉐 센터 부산 051.749.0911



THE LIVING

개인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리빙 제품이라면로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리빙 아이템만 모았으니 당신의 센스를 발휘해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반짝이는 빛과 하늘의 별에서 영감을 받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디자인을 재탄생 시킨 크리스마스 한정판 GODIVA. 문의 030-827-7700



아이폰과 연동해 다양한 애플워치 앱을 알람 사운드를 이용할 수 있는 42mm 로즈 골드 알루미늄 워치. 문의 060-333-4000



1950년대 복고풍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레드 컬러 프레스티지 냉장고. 문의 1588-2644



공간, 불, 흙, 물 등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의 향을 담은 향초 세트 30만원 **통덕스 by 본디샵**. 문의 1577-1921



컬러 타자를 가미한 아트미스 같은 보이져 영아파트 커피잔 세트 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3448-0728



작고 가벼운 보드에 간편한 조작만으로도 고화질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EOS M10 59만원8천원 **캐논**. 문의 1588-8133



관택이 있는 황동색 전등갓이 포인트인 구조적인 디자인의 램프 1백28만원 **통덕스 by 10 코르소 코모**. 문의 02-3018-1010



이탈리아 건축가 마리오 벨라치가 디자인한 프리미엄 라인인 인포그램의 민트컬 75만원 **리미**. 문의 02-2192-9661



2개의 스테인리스 식기 포함된 강아지 식기 세트. 실온 보관을 부추려 흔들릴 경향이 있다. 작은 사이즈 19만원, 큰 사이즈 21만원 **도자점 by 갤러리이넷 부티크**. 문의 02-6805-4285



선명한 레드 컬러 손잡이가 달린 메직 레드 에디션 팻 4종과 일렉스 프리미엄 레드 팬 1종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특별 에디션 심포니 인 레드 70만원대 **휘슬러 코리아**. 문의 02-3448-0266



모든 식재 71% PLUS는 연필할 수 있는 도판 디자인 식기 세트. (백색 컬러) 49,900원 **발랑티노**. 문의 02-518-1380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다

바람이 찾아 드는 언덕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 올려 앞으로는 용평G.C., 뒤로는 버치힐G.C.의 조망이 가능한 곳 대관령의 깨끗한 바람과 자작나무가 전하는 맑디 맑은 산소 테라피까지 용평리조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Birch Hill Terrace Residence입니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회원모집문의 02.3270.1137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80Type 현장에서 실제 촬영 한 용평G.C. 전경입니다



FEEL THE WAVE

배우 이하늬에게는 특별하면서도 에너지틱한 기운이 가득하다.
그녀가 토즈의 새로운 아이코닉 백 '웨이브'와 조우한 순간.
photographed by zoo yong gyun

패션이 독특한 기죽을 패치워크한 스웨이드 셔츠, 같은 컬러의 스카니 벨트, 기하학적인 느낌을 주는 멤피스 패턴의 펠 링크 소재 웨이브(Wave) 백, 레이저 커팅으로 포인트를 준 앵글부츠 모두 토즈, 모자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바이커 재킷의 디테일을 적용한
가죽 트렌치코트, 솔다백뿐만
아니라 클러치로도 사용 가능한
스웨이드 소재의 웨이브(Wave)
클러치 모두 토즈, 터틀넥 등과 대님
팬츠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자카드 패턴이 화려한 패딩
이우터, 사크테일 송이지가죽을
고미노 패들로 장식한
웨이브(Wave) 백 모두 토즈,
블랙 팬츠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바이커 디테일을 살린 메탈 지퍼가 포인트인 셔츠, 그래픽적인 패턴이 돋보이는 가죽 스커트, 화사한 컬러의 사크테일 숄더가죽 소재의 웨이브(Wave) 백, 화이트 밴클, 가죽 앵클부츠 모두 토즈.



메탈과 가죽, 스톤으로 이루어진 펜던트, 메탈 장식과 가죽 스래핑 디테일의 밴클, 셀러리아 숄더가죽을 사용한 미디엄 사이즈의 웨이브(Wave) 백, 모두 토즈, 니트 스웨터와 팬츠, 모자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스타일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소재의 트랜치코트, 파이프 소재를 패치워크해 아가일 패턴을 재현한 웨이브(Wave) 백, 블랙 로퍼 모두 토즈, 화이트 원피스와 나사스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문의 토즈 02-3438-6008

자카드 워빙으로 제작한 기하학적 패턴이 돋보이는 니트 톱, 화이트 가죽 스커트, 실용성을 강조한 스웨이드 소재의 웨이브(Wave) 백 모두 토즈, 가죽 재킷과 롱부츠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헤어: 에이크림 성지안
스타일리스트: 이보람
진행: 락지아(객원 에디터)

1 에투르디쌍(Étourdissant) 네크리스,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네크리스의 브릴리언트 컷 센터 스톤은 내부에 전혀 흠이 없는 D 컬러의 34.96캐럿 다이아몬드다. 두 가지 스타일로 착용할 수 있으며, 처음 두 줄을 빼내고 착용하면 심플하게 연출할 수 있다. Vincent Wulverly ©Cartier

2 플라보아인(Flamboyan) 링, 플라티넘, 30.19캐럿 코발트 비즈 1개, 총 13.47캐럿의 코발트 비즈 4개, 총 14.28캐럿의 장미아산 에메랄드 비즈 4개, 카보숩 컷 에메랄드, 옅은스, 블랙 라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Nils Herrmann ©Cartier

3 아라비카(Arabica) 브라이슬릿,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가넷 롱 비즈, 루비 비즈, 브릴리언트 컷 브라운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 Nils Herrmann ©Cartier

4 가란스(Garance) 이어링, 플라티넘, 총 5.68캐럿의 모장브르산 쿠션형 루비 2개, 총 6.06캐럿의 미안브르산 라운드형 및 오발형 루비 22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Cartier

5 정교한 스키테와 눈부신 원석들, Thomas Deschamps / Julien Claessens ©Cartier

6 클라르테(Clarité) 브라이슬릿, 화이트 골드, 쿠션형의 콜롬비아산 66.09캐럿 에메랄드 1개, 록 크리стал, 옅은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구성했다. Vincent Wulverly ©Cartier

7 푸쉬카르(Pushkar) 이어링, 화이트 골드, 총 15.09캐럿의 타원형 카보숩 컷 블랙 오팔 2개, 인그레이빙 만다린 가넷, 인그레이빙 차보라이트 가넷, 인그레이빙 탄자나이트,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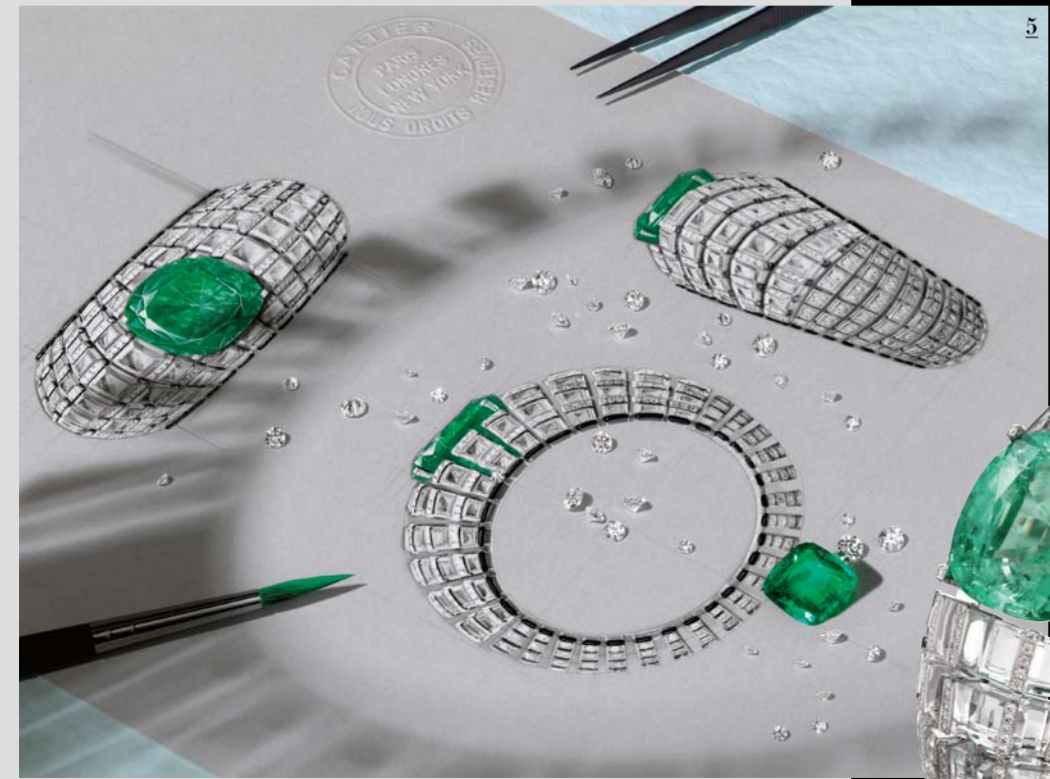
8 가란스(Garance) 네크리스, 플라티넘, 각 5.27캐럿과 5.02캐럿의 모장브르산 쿠션형 루비 2개, 총 8.44캐럿의 미안브르산 라운드형 및 오발형 루비 2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Nils Herrmann ©Cartier

9 텀트(Teinte) 브라이슬릿, 화이트 골드, 옅은스, 크리스프라이즈, 코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구성했다. Nils Herrmann ©Cartier

1

dazzling Explosion

꿈을 꾸는 듯 매혹적인 화려함,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반짝임, 상상과 기대를 넘어선 강렬한 컬러의 조화... 2015년에 만난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에투르디쌍 까르띠에(Étourdissant Cartier)'는 때로는 한 다발의 향기로운 부케처럼, 때로는 신비로운 전설처럼, 또 때로는 엄숙한 자연의 풍경처럼 다가와 오감을 만족시키며 보는 이들을 사로잡는다.



5



6

독보적인 상상력과 압도적인 화려함, 놀라운 하이 주얼리를 경험하다

까르띠에가 최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담아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에투르디쌍 까르띠에(Étourdissant Cartier)'를 탄생시켰다. 이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은 빛과 어둠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낸다. 까르띠에 장인들은 가장 진귀한 보석인 다이아몬드와 시파이어, 에메랄드, 루비를 비롯해 오팔과 코럴, 탄자나이트, 가넷, 크리스프라이즈 등 주변의 빛을 굴절시키며 환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고급스러운 보석만 선별해 주얼리를 제작했다. 자유롭고 대담한 매력에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주얼리들이 불꽃놀이처럼 화려로운 컬렉션을 구성한다. '놀랄 만한'이란 '에투르디쌍(étourdissant)'의 의미처럼 눈부신 아름다움, 그리고 매혹적인 화려함이 담겨 있고, 보석이 연출하는 강렬하고 대조적인 빛의 유희부터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는 은은한 빛의 배열에 이르는 다채로운 광채는 화려함의 극치를 선사한다. 이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는 컬렉션명과 동일한 에투르디쌍 네크리스로, 놀랍도록 빛을 발하며 흠 하나 없이 완벽한 무색의 34.96캐럿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네크리스 하나만으로도 에투르디쌍 까르띠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2015년 여름, 파리의 리비에라에서 이 놀라운 하이 주얼리 에투르디쌍 까르띠에 컬렉션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파리에 이어 지난 10월 싱가포르에서도 에투르디쌍 까르띠에를 포함한 특별한 전시를 공개했다. 싱가포르 이벤트에는 2015년 새롭게 선보이는 에투르디쌍 컬렉션을 포함한 다수의 하이 주얼리 작품을 대거 추가해, 그 방대한 양과 압도적인 화려함으로 더 큰 감탄을 자아냈다. 싱가포르의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며 까르띠에가 6백 점이 넘는 하이 주얼리, 고급 시계, 그리고 진귀한 예술 작품을 공개 전시한 것으로, 이 전시는 대중에게 까르띠에의 현대적인 하이 주얼리를 모두 공개하는 전 세계 최초의 전시회이기도 했다. 이 중 60점이 넘는 작품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인데, 까르띠에는 싱가포르의 독립 5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며, 대중이 지닌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장인 정신에 대한 특별한 접근 방식을 더욱 많은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이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전시회를 기획했다.

어둠과 빛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심플하지만 은밀한 공간에 전시된 하이 주얼리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스톤의 사이즈, 세공의 정교함, 의외의 컬러 매치 등으로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파워풀한 위용을 보여주었다. 주얼리 하우스로서 까르띠에가 지닌 자부심과 책임감을 집대성한 듯한 전시회였다.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이 주얼리의 세계. 까르띠에가 그 중심에 서 있음은 아마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실일 것이다.

3

2

4

8

11

13



2

10 하이데라바드(Hyderabad) 헤드밴드, 플라티넘, 18.23캐럿의 콜롬비아산 말각형 인그레이빙 에메랄드 1개, 인그레이빙 시파이어와 에메랄드, 루비 드롭, 루비, 시파이어와 에메랄드 비즈, 옅은스, 트라이앵글형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실드 코드로 이루어졌다. 브라이슬릿과 초커로도 착용 가능하다. Julia Noni ©Cartier

11 로마노프(Romanov) 브라이슬릿, 플라티넘, 197.89캐럿의 실론산 로즈 컷 쿠션형 시파이어 1개, 총 2.59캐럿의 스텝 컷 실드형 다이아몬드 (D F) 2개, 1.03캐럿의 다이아몬드(FSI) 1개와 1.02캐럿의 트라이앵글형 다이아몬드(VS2) 1개, 인그레이빙 록 크리стал,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구성했다. 시파이어는 인그레이빙 록 크리стал로 교체 가능하다. Nils Herrmann ©Cartier

12 텀트(Teinte) 링, 화이트 골드, 30.69캐럿의 카보숩 컷 라운드형 코발 1개, 코발, 옅은스, 크리스프라이즈,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구성했다. ©Cartier

13 까르띠에 에투르디쌍은 싱가포르 파노레드 파라에서 2015년 10월 31일 단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보였다. ©Cartier



12



1 3인의 디자이너가 경쟁을 벌인 2015 미도 X빅벤 워치 디자인 콘테스트 현장. 영광의 주인공은 디자이너 세바스티안 페레. 2 미도의 CEO 프랑츠 린더. 3 영국 근위대 복장을 한 악대의 퍼포먼스로 이벤트의 재미를 더했다. 4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미도X빅벤 워치 디자인 콘테스트 현장. 5 미도 알트모트 GMT 코라미 리미티드 에디션. 6 미도 카번트 크로노그래프 칼라버 60.



true Design

미도 그룹을 이끄는 CEO 프랑츠 린더(Franz Linder)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최고의 기술을 담은 시계를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도의 핵심은 바로 디자인에 있다고 말한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기술력에 매력적인 디자인을 더해 미도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미도 X빅벤 워치 디자인 콘테스트에 다녀왔다.

진정한 디자인의 상징, 미도(Mido)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Mido)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 품질의 정교한 무브먼트다. 까다로운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제품을 그 어느 브랜드보다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선보이는데, 같은 가격대의 브랜드 중 미도만큼 좋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브랜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다. 최고 품질의 기술력 외에 미도의 또 다른 매력은 이름만큼 견고한 디자인이다. 대를 물릴 수 있는 타임리스한 디자인, 어느 시대가 잘 어울리고 오랜 시간 착용해도 낡아 보이지 않는 디자인 역시 시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다. 미도의 워치 컬렉션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재미난 요소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디자인들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진정한 디자인의 상징이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여과 없이 보여주듯 대부분의 디자인은 세계적인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특징. 역시 깊은 건축물야말로 타임리스 디자인을 자랑한다는 점은 미도의 디자인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대표적으로 1934년 출시된 이레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미도의 대표 시계, 멀티포트(Multifort) 컬렉션을 살펴보자. 시커니 허버 브리지의 스틀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은 이 시계의 다이얼은 허버 브리지의 직선적이고 강인한 스틀 구조물이 태양에 반짝이는 것처럼 스트라이프 음각이 빛에 의해 다각도로 반사되는 독특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또 로마 콜로세움의 원형경'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올 다이얼(Sil Dial)' 워치는 무광 블랙 다이얼에 도넛 오렌지 컬러의 인덱스와 인젝션으로 디자인해 마치 총층이 계단으로 디자인된 원형경'장 내부를 연상시킨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모티브로 한 '커맨더(Commander) 컬렉션' 역시 시시각각에 자리 잡은 니클 플레이트 문자 부분이 에펠탑의 철골 구조를 똑 빼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름은 건축물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얻는 미도는 한발 더 나아가 세계건축가협회(UA)와 장'찍인 파르나움을 체결해 세계 유명 건축물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더욱 견고히는 직업으로, 미도만의 특별함을 덧붙일 수 있는 대목이다.

2015 미도 워치 디자인 콘테스트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시커니의 허버 브리지, 프랑스의 레 오페라하우스 등 수많은 세계적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미도의 다음 선택은? 바로 영국 런던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빅벤이다. 보다 특별한 디자인과 이벤트를 위해 미도는 지난 3월 20일 빅벤을 주제로 한 워치 디자인 콘테스트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콘테스트에는 유명 디자이너 3인, 즉 에릭 지로(Eric Giroud), 세바스티안 페레(Sebastian Perret), 로렌초 발로네(Lorenzo Valone)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으며,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콘테스트를 통해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이고, 디자이너가 시계 디자인의 영감을 받은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 그 대의 결과는 지난 10월 15일, 중국 상하이 소저이아트스 호텔서 개최한 미도X빅벤 워치 디자인 콘테스트 이벤트 현장에서 공개되었다.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 전,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빅벤을 모티브로 꾸민 행사장에는 영국 근위대 복장을 한 악대의 퍼포먼스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이날 참가한 다양한 구'의 글로벌 프레스를 위한 강연 이벤트로 빅벤 그림이 채색을 하는 미니 콘테스트를 개최해 재미를 더했다. 축제 끝났던 시나이는 퍼포먼스가 끝난 후, 경쟁자 3인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에 스크린에 띄우고 드디어 전 세계 약 10만 명의 워치 애호가와 건축 애호가'가 참여한 투표 결과를 발표할 순간!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시계 - 주역의 제자인 디자이너 세바스티안 페레. 석양이 질 때의 빅벤을 연상케 하는 오렌지빛 골드 컬러 워치로, 원형과 사각이 공존하는 빅벤의 독특한 건축 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해 둥근 다이얼과 사각 케이스 백 컬러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콘테스트 우승자에 대해 미도의 CEO 프랑츠 린더는 "세바스티안 페레는 미도에 대한 디자인적 이해가 매우 높은 디자이너입니다. 시계의 요면뿐만 아니라 케이스 백'까지 건축물의 특징을 녹여낸 것은 미도의 디자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큰 사이즈의 다이얼은 가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심플한 디자인은 미도의 DNA라 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디자인한 빅벤 워치는 2016년 스위스 바젤월드에서 선보일 예정인 동시에 5월 개 한천으로 저짜된다. 2015 미도X빅벤 워치 디자인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건축물과 연가된 컬렉션 및 콘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니 미도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문의 02-3149-9599 에디터 권유진<심하이 현지 취재>



interview Sebastian Perret (콘테스트 우승자 디자이너)

"빅벤의 그림자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건축한 자기'소를 부럽하다. 그 조각자는 어떤 분야의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해왔는지도 궁금하다. 스위스 북스탈에 위치한 에투드 드 스타일(Étude de Style)이라는 디자인 회사의 설립자이며 주역의 제작자와 보석을 제공하는 수공예가입니다. 스위치 그룹의 여러 브랜드와 작업해 시계 디자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상한 당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시계업인 빅벤은 유구적이고 매우 특이한 건축적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 건축물은 한눈에 여러 단계의 무한한 디테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빅벤 자체가 지난 타임리스한 건축물의 이름다운 형상과 햇빛이 드리울 때 생긴 빅벤의 그림자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더불어 시계는 둥근 모양인데 그들은 사각형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네오 고딕 스타일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대적 시기를 새로운 타임스에 투영했으며 미도가 지원하는 시대적인 아이덴티티를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사각 형태의 타워와 둥근 시계의 형상을 모두 보여주고 싶어 이를 둥근 다이얼과 사각형 케이스 백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계 디자인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니다. 시계 디자인은 매우 매력적인 작업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시계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기존의 시계는 무엇인가요? 미도의 시계 중 커맨드 컬렉션이 가장 멋졌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유니크한 멋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며, 컬렉션의 히스토리가 많은 타임리스이기 때문입니다. 또 에펠탑의 디자인적 요소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이는 당시에도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사실 상하이는 이전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매우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도시를 둘러볼 기회가 없었네요. 이번이 끝'되면 이 도시를 둘러보고, 저의 디자인 작업에 도움이 될 영감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admit Perfection

리처드 밀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3년이 지났다. 창립자의 이름을 딴 이 멋진 시계 브랜드는 그동안 유니크하고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갔고, 시계 마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브랜드가 되었다. 컬트라 불릴 정도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룬 리처드 밀, 그리고 주목해야 할 여성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타임피스 그 이상의 가치, 리처드 밀

리처드 밀(Richard Mille)이라는 시계 브랜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이름은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 선택지'션을 불러일으킨 브랜드의 이름이다. 지금도 브랜드를 대표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리처드 밀은 주역'리 브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 진짜한 시계 제조사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 파인 워치메이킹의 극치를 보여주는 컬렉션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2001년 시계 브랜드로서 리처드 밀을 선보였다. 이때 첫선을 보인 컬렉션인 RM 001 투르비용 모델에 20만 유로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결과는 대성공. 모두의 우려를 불식하고 모든 제품을 선주문으로 판매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무브먼트의 이름을 딴 시계 이름에 그대로 사용한 최초의 컬렉션이자 랜덤으로 모델인 RM 001 투르비용은 수십 년 후에는 경매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리라 예상될 정도로 보석적인 시계업계에 기념비적인 행보를 남겼다. 미래 지향적, '하이테크' 같은 개념을 시계업계에 도입하기 위해 F1 경주용 자동차와 우주항공 산업 등 혁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테크닉을 워치메이킹 기법'에 차용한 것은 뛰어난 발상이었다. 물론 디자인적이나 가격적으로 기존 시계 시장의 편을 뒤집은 브랜드이기'에 클래식한 시계 브랜드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시계의 완성도와 브랜드 철학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시계 마니아와 수집가'까지 사로잡을 정도로 극한을 추구하는 신중함에 놀라게 된다. 레이싱 카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기계적 완성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특수한 시계 원재료를 사용하는 모험'적 정신, 더 어려운 기법을 시도하는 도전적인 디자인은 유서 깊은 시계 브랜드'가 리처드 밀을 진지한 시계 브랜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해외 셀러브리티의 열광적인 반응과 국내 셀러브리티의 마음을 사로잡은 몇 가지 스토리가 더해져 리처드 밀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럭셔리업계에서 오래도록 뜻을 펼친 리처드 밀의 완벽한 공작적인 홍보나 드라마틱한 마케팅 대신 소비자가 원하는 멋진 디자인과 시계 자체의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리처드 밀이 선보인 최초의 시계를 지금 시계업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르노&피파가 고안했다는 것, 독보적인 디자인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컬렉션 디자인을 시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 모두 리처드 밀의 신화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된 요소다. 물론 이 모든 요소는 그 어떤 트리거 없이 시계를 위한 시계, 유니크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실현한 것이다.



2 (위부터) 인바유스로 개발된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라버 CRMA2를 장착한 RM 07-01 모델.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흙 파베 세팅한 케이스와 레드 컬러 포인트 다이얼이 특징인 모델이다. 정교한 레드 골드 토너 케이스에 입은 스텔레온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RM 037 워치. 2 자신의 이름을 딴 최초의 시계를 선보인 창립자 리처드 밀. 3 하이트 세라믹으로 완성된 RM 07-01. 백 케이스로 보이는 무브먼트가 정교하다. 4 리처드 밀 애호가'로 알려진 나탈리 포드. 5 물론 속내 화려한 투르비용을 품은 RM 19-02 워치.

독보적인 매력, 리처드 밀 레이디스 컬렉션

리처드 밀의 남성 워치는 브랜드 문화와 동시에 세계 시장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여성 워치가 그 뒤를 이을 차례가 되었다. 세계 시장에서 리처드 밀의 여성 워치'가 각광받는 것은 특별한 디자인과 정교한 세팅, 그 어떤 브랜드'에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완성도 때문이다. 모든 시계와 영감을 얻어 시계를 만드는 리처드 밀의 원칙은 여성 시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모든 나사와 너트, 레버와 스프링'까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오로지 리처드 밀 공장에서만 생산한다. 티타늄(grade 5), ARCAP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리와 니켈의 합금, 카본 나노피브, 리틀(LITAL®), 세라믹 등을 사용한다. 수많은 여성들이 기계적 완성도 때문에 이 시계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잘 만든 시계'에게만 시계 위에 주얼리만큼 독보적인 매력을 뽑아내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하이얼리를 선택했다. 깊은 공장에서 가장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의 리처드 밀 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계 케이스를 카메라 렌즈로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본다 해도 작은 실수도 찾아내고, 정교하게 운송하는 무브먼트' 사이로 보이는 정교한 바늘의 움직임은 드라마틱한 컬러 조합과 최상의 티타늄, 반짝임으로 가득찬 다이아몬드 사이에서 최상의 균형을 이룬다. 토너(tonneau)형 케이스는 여성'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현재 많은 여성들이 이 과감한 디자인에 찬사를 보낸다. 리처드 밀이 직접 발간한 곡선의 토너형 케이스를 고안한 이유로 간다'고 명료하다. 바로 뛰어난 착용감을 위해,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혹은 튀는 디자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속속을 감싸는 편안함을 위해 토너형 케이스를 고안했고, 물론 만들기' 어렵지만 지금은 리처드 밀의 상징이 되어 브랜드를 아끼'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형태'가 되었다. 이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서 리처드 밀의 워치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시간적으로는 고강하고 현대적이지만 소재와 기공법은 철저하게 수공예 따르기 때문이다.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생활할 때는 철저한 기준 아래 모든 부품을 수작업으로 완성한다. 또 대량'생산은 피하고 사람들의 손끝을 거치는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방법만 사용한다. 과감한 디자인 아래 스위스 워치메이킹 유산을 더 세심하게 담아낸 리처드 밀은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서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변전의 매력을 드러낼 것이다. 문의 02-2230-1288 에디터 배미진



sensual Moment

어린 시절 인형 놀이를 즐겨 하던 마담 리치는 로맨틱시즘을 패션에 이어 향수에도 담아냈다. 동화 속 세상에서 뛰어놀던 나나리치의 소녀는 이제 성숙한 여성이 되었고, 관능적 아름다움을 담아낸 향수 '렉스타즈'가 새롭게 탄생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 우아하고 관능적인 로즈 향이 돋보이는 나나리치 렉스타즈. 클러치를 연상케 하는 골드 캡 보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2 나나리치 렉스타즈의 주인공인 장미.
3 탄탄한 물에, 중성화 및 건조 매혹적인 마스크로 시련받고 있는 배우 최어진. 나나리치 렉스타즈의 색채면서 우아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은 그녀는 인트루뷰내 렉스타즈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낸다.



클러치 보틀에 담긴 관능적 향기, 나나리치 '렉스타즈'

프랑스 오트 쿠튀르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이었던 마담 리치 (Madame Ricci). 퇴폐주의와 자유주의가 휩쓸던 1930년대 파리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페미니즘 철학을 우아하고 기품 있게 표현한 디자이너였다. 쿠튀르 특유의 정교함과 장식미를 중시했던 그녀의 작품은 성숙한 아름다움을 담은 여성 향수 '렉스타즈'와 자연스레 오버랩된다. 1946년 첫 향수를 선보인 이래 잇달아 내놓은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나나리치 향수는 파리지앵을 대표하는 심벌이 되었음은 물론, 오늘날의 거대 명품 하우스로 발돋움하는 발판 역할을 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패션에서부터 향수까지 나나리치의 이름을 단 모든 제품에는 여성의 꿈과 판타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 하지만 그동안 나나리치 향수 대부분은 백설 공주를 꿈꾸는 소녀의 상상을 그린 '나나, 헨젤과 그레텔'의 동화 세계를 달콤하게 풀어낸 '달리셔스 드 나나'처럼 소녀의 판타지를 담아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공주가 되고 싶었던 소녀는 내면의 여성성에 집중하는 여인으로 성장했고, 자신의 욕망과 에로틱 판타지에도 솔직해졌다. 이번엔 탄생한 렉스타즈가 기존의 나나리치 향수와 다른 이유다. '당신의 판타지를 자유롭게(Liberate Your Fantasies)'라는 광고 비주얼 속 문구에서 연상할 수 있듯 묵직한 장미 향과 따뜻하고 달콤한 마스크 향이 조화를 이루는 색시하고 고급스러운 향조가 특징이다. 세계적인 천재 조향사 프란시스 커제(Francis Kurkdjian)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렉스타즈의 첫 향은 불가리안 로즈, 터키 로즈로 시작해 여성스러움의 절정에 이른다. 따뜻한 우디, 벤조인이 그 뒤를 잇고, 마지막의 마스크는 우아하고도 관능적인 진향을 하루 종일 지속시킨다.

렉스타즈와 처음 조우할 때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클러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다. 나나리치 컬렉션의 핸드메이드 드레스만큼이나 디자이너의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다. 농익은 와인의 자줏빛 그라데이션 컬러를 머금은 보틀 위에 자라난 골드 캡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센세이셔널한 광고 캠페인 역시 나나리치의 새로운 향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성상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든 폰 슈타이너(Gordon von Steiner)가 제작한 광고 영상에서 프랑스 인기 모델 레티샤 카스타(Laetitia Casta)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남성과 격정적 정사를 상상하고는 웃음 짓는 농염하면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매력 넘치는 남성을 만났을 때 한 번쯤 해봤을법한 짜릿한 상상과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현대 여성들의 판타지를 대변한 것. 평소 내면에 꼭꼭 숨겨두었던 관능미를 이끌어내고 싶거나, 이제 소녀의 풋풋함에서 벗어나 성숙미와 고혹미로 어필하고 싶다면 나나리치의 렉스타즈가 가장 빠르고 손쉬운 해결책이 되어줄 것이다.

배우 최어진, 렉스타즈의 향기에 취하다

탄탄한 몸매와 미모에 당차고 중성적인 매력을 겸비해 남성 팬은 물론 여성 팬까지 두루 확보하고 있는 모델 출신 배우 최어진은 따로 모은 향수가 상당할 정도로 향수 사랑이 남다른 셀러브리티다. 그런 그녀가 나나리치의 여성 향수 렉스타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평소 어니션가 맡아본 듯 뻘뻘한 향보다는 개성이 살아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그녀는 플로럴 베이스에 관능적이면서도 깊고 묵직한 마스크, 우디 계열을 더한 향수를 즐긴다고.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수를 찾으려 노력해온 그녀는 렉스타즈를 처음 뿌려보자마자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그 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다. "귀여운 여성, 예쁜 여성, 우아한 여성 등 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이 있지만 렉스타즈는 그중에서도 멋진 여성을 위한 향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인하면서도 매력이 넘치지만 여성스러움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팜 파탈의 매력을 지닌 여성이요. 같은 여자라도 와인 한잔하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느낌 말이에요." 마치 향기에 취한 듯 렉스타즈에 반한 이유를 기침없이 이야기하던 그녀는, 손목에 묻혀 귀 뒷부분에 살짝 묻히고 스치는 머리카락에서도 은은한 향이 나도록 향수를 공기 중에 분사해 향기를 입는다는 자신만의 향수 사용 팁도 함께 전했다. 30ml 7만7천원, 50ml 10만원, 80ml 12만8천원. 문의 02-3443-5050 에디터 **배미진**



a drop of Miracle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해 과학적 성취로 마무리하는 샤넬 뷰티의 특별함. 활성 분자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희귀 식물, 바닐라 플라니폴리아를 고농축해 한 병에 담아 놓은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는 샤넬 뷰티의 정수다. 재생, 보호, 그리고 회복까지, 세 가지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해 가장 건강했던 본연의 상태로 피부를 되돌려주는, 샤넬이 전하는 한 방울의 기적.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에 극적인 드라마를 펼치는 샤넬의 안티에이징 라인 '수블리마지'

샤넬이 선택한 인도양외 상-라 마다가스카르는 국제자연보존협회가 지구상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풍부한 곳으로 지정할 청정 지역. 화성품 원료를 찾던 샤넬은 일찍이 그곳에서 희귀 식물인 바닐라 플라니폴리아를 발견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1백7종의 바닐라 가운데 활성 분자를 가장 풍부하게 함유해, 자연에서 찾아낸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 이 희귀 식물은 잡티, 인색 개선 등 노화에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피부가 본래의 생기를 되찾도록 돕는 샤넬의 대표적 안티에이징 라인인 '수블리마지'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어, 각종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간간히 스카케어 제품을 고르다가 그동안 수블리마지 라인을 관해왔던 이들은 이번엔 새롭게 탄생한 '수블리마지 렉스트레'의 출시에도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피부 세포를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연구를 거듭한 샤넬이 단 한 방울에 재생, 회복, 보호까지,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담아 피부가 매일 아침 자기 피부로 다시 태어나는 효과를 주는 트리트먼트 오일을 완성했으니 말이다. 피부와 흡사한 활성 성분으로 구성되어 그만큼 피부에 빠르게 완벽하게 전달되는 신맛함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국제 특허 출원 중인 독보적인 포몰라는 샤넬의 스카케어 노후와 생경공학 기술에 무한한 신뢰를 더하는 요소다.

'렉스트레' 한 방울에 담아낸 1만 개의 줄기세포

샤넬은 수블리마지 렉스트레에 활성 효능의 정수를 담아내기 위해 브랜드 최초로 꽃, 열매, 줄기세포까지 식물의 전부를 사용하는 획기적이고 독특한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바닐라 플라니폴리아를 고농축해, 한 방울에 1만 개의 줄기세포를 담아내는 혁신적인 스카케어 제품을 탄생시켰다. 피부 재생을 위해 선택한 재료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꽃과 열매다. 여기서 추출한 고농축 플라니폴리아 PFA 성분은 피부의 모든 노화 징후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포도씨를 재

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세 피부 세포의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은은한 광채를 더해주는 것은 물론, 피부 톤을 고르고 환하게 가꾸주는 것. 또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주요 성분인 재할성화되어 주름은 해교롭게 매워지고 피부는 더욱 탭스 럽고 단단하게 커져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피부의 자가 회복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은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잎에서 추출한 식물 줄기세포. 이 성분은 활성 분자와 단백질, 글리코사이드, 글리콜산(단백질 복합체를 포함한 다당류)과 비타민을 생성하고, 피부에 이 물질들을 직접 전달한다. 이 물질들의 구성은 피부 표피 세포와 유사해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활성 성분을 방출해, 피부가 본연의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은 꽃 인퓨전(infusion, 우레카)이 책임진다. 꽃의 가장 귀한 특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수확한 자마자 곧바로 정성 들여 건조시키고, 건조된 꽃을 다시 오일 베이스에 담가 3일간 부드럽게 저어준다. 이렇게 완성한 오일은 천연 활성 성분으로 꼭 채워져 날씨가 공기 등 각종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사용 방법은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할 때마다 저녁에 한 번 또는 아침자녀으로 한 방울씩 손가락에 덜어내어 얼굴에 펴 바르면 된다. 고농축 오일 에센스라 크림이나 미샤지 크림에 한 방울을 더해 스카케어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 처음에는 촉촉한 젤 타입이지만, 피부에 닿자마자 오일로 변해 피부를 코팅하듯 부드럽게 감싸 피부 방어력을 즉각적으로 높여준다. 일주일 이상 사용하다 보면 푸석했던 피부에 생기가 들고 건조해진 피부에 스스로 수분이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날이 갈수록 피부는 스스로 힘을 되찾고 자카 재생력으로 무장, 일시적인 광채나 수분감이 아닌 피부 속부터 스스로 빛을 발하는 활력과 에너지 줄을 느낄 수 있다. 재생, 보호, 회복까지 모든 효능을 전하는 샤넬의 고농축 오일 에센스라면 모든 뷰티 케어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다. 피부가 가장 건강했던 시기로 돌아가 본연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한 방울로 겨울 철병진되기 직전 내 피부를 구원해보자. 15ml 63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Real recipe

CNP차앤박이 지난 20년간 시술 후 적용해온 노하우를 담아 피부 재생 크림 'CNP 닥터레이 Dr.R2 리얼 마데카소사이드 크림'을 선보인다. 마데카소사이드를 비롯한 네 가지 센텔라 추출물이 피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리얼 마데카소사이드 크림의 비밀스러운 재생 레시피.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국내 코스메슈티컬의 대표 주자, CNP차앤박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인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제품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성분으로 만든 치료 화장품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단순히 트러블 피부의 전용물이 아닌 가격 대비 꽤 만족스러운 효과를 증명하며 그 위치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 피부과 의사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해 '닥터 브랜드' 화장품으로 불리며 신뢰감을 더하는 것도 한 몫한다. 국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를 이끈 대표 주자는 단연 CNP차앤박이다. 전문가들이 제품 기획에서 연구 개발까지 직접 참여해 피부 상태에 적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엄선된 성분만 사용하는 데다, 실제 임상 테스트 진행은 물론 국내 우수 연구소와 연계한 검증 시스템으로 간편한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 여기에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성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색소, 무알코올, 무파라벤, 무인공향, 미네랄 오일과 벤조페논 무첨가 시스템을 고수했으니 소비자들의 마음을 끈 건 당연지사.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 후 바로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자극 없는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은 물론, 피부과 치료 후 효과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노력해온 CNP차앤박. 꾸준히 손상된 피부에 진정과 재생 효과를 선사하는 화장품을 내놓으며 다양한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10가지 피부 고민을 단번에, Dr.R2 크림

CNP차앤박의 20여 년 노하우를 그대로 응축한 대표 제품을 꼽자면 단연 'CNP 닥터레이 Dr.R2 리얼 마데카소사이드'. 드라마틱한 피부 재생 효과와 더불어 피부의 겉과 속에서 이중으로 피부 노화의 징후를 개선해주는 크림으로, 전반적인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해 네 가지 베타글리칸(아사이티카) 추출물, 즉 마데카소사이드, 아이사티카사이드, 마데카사이드, 아사이티카사이드를 모두 함유한 것이 특징. 특히 과민감성 피부를 진정시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재생시키는 마데카소사이드는 연구의 주원료로 쓰일 정도로 효과가 탁월한 성분으로, 센텔라 추출물 중 50%에 해당하는 비율을 마데카소사이드로 구성했다. 이는 CNP차앤박에서 앞서 선보인 R2 스킨리셋 베리어 크림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집중 손상 피부 케어를 가능케 한다. 피부 세포의 근원을 바꿔줄 재생 레시피는 또 있다. 장제수 대신 베타글리칸 50%를 함유한 것. 피부 보호와 진정 효능을 극대화한 비결이다. 특효분은 CNP 인티-옥시던트 콤플렉스 성분!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에 깊이 관여해 투명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단 한 가지 제품으로도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을 없애주는 해결사인 셈. 다크닝, 주름 기미, 탄력, 건조함 등 전반적인 노화 현상이 고민되는 피부, 스트레스나 날씨, 먼지 등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 후 약해진 피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실제 임상 실험 결과 사용 2주 후에 피부 겉(표피)과 속(진피) 보습, 각질, 피뭉침, 잔피 치료도, 눈가 주름, 걸 기미, 피부 장벽 손상, 윤기와 광택, 클라겐 저하 등 10가지 피부 고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뷰티 마니아와 블로거들 사이에서 '닥터알투 크림'으로 통하는 CNP 닥터레이 Dr.R2 리얼 마데카소사이드 크림. 코스메슈티컬 제품답게 자극적인 성분을 배제해 안전성까지 보장하니, SOS를 외치는 겨울철 피부를 위해 믿고 맡겨도 좋겠다. 50ml 5만5천원. 문의 080-220-0707 에디터 권유진

눈에 띄게 빠른 피부 진정 효과

"안똥 보기에 짐작이 느껴지는 연고 질감인데 손으로 문지르면 순간 광택이 느껴질 정도로 촉촉하게 스며드는 질감과 부드러운 발림성에 감탄한 크림이에요. 여러 번 덧칠해도 걸들거나 재형이 밀리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바를 수 있어 더욱 좋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피부 변화는 예민했던 피부가 많이 진정되었다는 점이에요." (스타일 조선희) 에디터 권유진

합리적인 가격, 즉각적인 효과의 피부 재생 크림

"평소 피부 컨디션이 들쭉날쭉한 편이라 환경이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뾰루지가 올라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Dr.R2 크림을 도통하게 바르면 붉은 기가 가라앉고 트러블도 잠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피부 상처 치료에 뛰어난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등록 받았기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해 햇빛에 자극받아 피부가 붉어지거나 자극적인 피부과 시술 후 빠른 피부 재생 효과를 원할 때 바르면 더욱 효과적이네요. 오래도록 사용해도 가격 부담도 없어요." (스타일 조선희) 에디터 권유진



embrace Scent

12월, 파리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왔다. 올 연말 연인의 마음을 향기롭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커플 향수로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 부드러운 향의 선율과 함께 몽블랑의 변치 않는 가치까지 함께 전해줄 '엠블랑과 '레이디 엠블랑'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다이아몬드가 이끄는 매력의 향기, 레이디 엠블랑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빛나고 소중한, 작은 결절에는 선물한 이의 마음과 배려, 영원과 같은 광채, 결정이 생성되는 인공의 시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 커링 면을 따라 화려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레이디 엠블랑은 보석 커링 기술을 결합해 몽블랑의 시그니처인 화이트 스타를 더욱 드러내며 표정, 형태적인 동시에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우아한 여성에게 또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되어준다. 여성이 그 도드라지는 로즈 시계 향은 크리스탈처럼 순수하면서도 실크처럼 부드럽고, 샌드우드와 앰버, 머스크의 깊은 진향은 어떤 향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을 선사한다. 이성을 사로잡는 향기로운 모약이 되어줄 레이디 엠블랑은 독립적이고 스타일리시한 현대 여성을 올 연말 더욱 특별하고 반짝이게 해줄 것이다.

섬세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신사를 위한 헌사, 엠블랑

근엄한 분위기의 날 선 수트에 스위스 시계를 차고, 재킷 인주머니에는 몽블랑의 마이스터스틱 펜 149번이 들어 있는 그, 뛰어난 감각과 섬세한 인품에 럭셔리한 스타일까지 겸비한 신사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그만의 시그니처가 존재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의 존재감을 대신 일리는 향수 '엠블랑'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몽블랑이 간직한 전통적 특성과 세계관을 담아낸 엠블랑은 강인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향이 일품으로, 프레시 우디 아로마틱 향조를 베이스로 하고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시니몬과 이쿠아우스 향을 더해 신사의 클래식한 무드에 완벽한 방점을 찍는다. 또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몽블랑의 눈 덮인 봉우리를 도식화한 화이트 스타 로고를 마치 고급스러운 문자처럼 묵직하게 표현한 블랙 보틀이 특징이다. 몽블랑의 만년필과 시계가 그려낸 것처럼 클래식하지만 모던함을 잃지 않는 이 시대 남성들과 하류의 시가지 끝을 함께하는 매력적인 필수품으로서 손색없다. 문의 080-800-8809 에디터 권유진

(왼쪽) 몽블랑 레이디 엠블랑 오드 퍼퓸. (오른쪽) 몽블랑 엠블랑 오드 트왈렛.

editor's Pick

2015년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그동안 애정해온, 혹은 새롭게 화장대에 추가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만 엄선했다. *photographed by koo eun mi*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 메르 올리데이 인그라이빙 랩밤 랩밤 해나를 선물 하더라도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더한다면 그 감동은 배가된다. 라 메르의 랩밤 스페셜 인그라이빙 사책스가 그 해답인데, 랩밤의 삶버 두경 위에 원하는 문구와 이름, 이니셜 등을 새길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이 사책스는 12월 31일까지 제공하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의 문구를 적어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9g 7만2천 원. 문의 02-3440-2775. *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루주 알튀르 벨벳 347호 라 메르베이유즈 톤 다룬된 자갯빛 핑크로, 안색을 살리는 우아하고 세련된 컬러가 매력적이다. 이번 올리데이 시즌에만 출시된 한정판 컬러는 정도 여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것. 매트한 듯 보이지만 입술에 촉촉하게 발리며, 피부다라하게 마무리되지만 입술이 갈라지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립스틱이다. 3.5g 4만1천 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클레르보 보베 베르니 아 앙글레 트리오 주얼리 디자이너 조지 코차피와 협업해 출시한 올리데이 에디션 제품. 보석 카팅을 연상케 하는 케이스만큼이나 화려한 팔감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발링성이 뛰어난 브러시와 빠른 건조 속도! 네일 페인팅 솜씨가 서둘러도 드라이되지만 내구성을 완성할 수 있다. 8ml 6만7천 원. 문의 080-564-7700. *by 어시스턴트 김수민*

겔랑 에티오리트 플로론 앙상블 안마들의 화장대 위를 군것지게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제품. 겔랑의 베스트셀러 구슬 피부더의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제품. 영롱한 빛을 내뿜는 샤페인·골드·베이지 컬러의 펄 피부더 구슬로 구성되지만, 하이라 이터랜만 아니라 파시니 피부더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광택을 선사한다. 30g 9만8천 원. 문의 080-343-9500. *by 어시스턴트 김수민*

클라리스 하이드라퀀치 리치 크림 아침마다 정성스레 크림을 발라도, 건조한 사무실 환경 탓인지 오후만 되면 피부가 푸석해질 정도로 건조하다. 이런 연유로 For Very Dry Skin(매우 건조한 피부)를 위한 타입으로 출시된 이 리치 크림이 무척 반갑을 수밖에 카타프레이 추출물, 하일루론산 복합체를 풍부하게 함유해 기존 크림보다 더 강력한 수분 공급 효과를 자랑한다. 50ml 6만 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권유진*

겐조 플라워 바이 겐조 크리스마스 기프트 박스 사랑하는 연인 혹은 친구에게 선물할 아이템을 고민 중이라면 겐조의 플라워 바이 겐조 2015 크리스마스 기프트 박스를 눈여겨볼 것. 활짝 핀 포피꽃 사이에 달콤하고도 파우더리한 꽃향기의 플라워 바이 겐조가 가득! 작은 이 세련된 상자로 마음을 전하기에 충분할 테니! 50ml 11만6천 원. 문의 080-344-9500. *by 어시스턴트 김수민*

발렌티노 도나 스타드를 형상화한 색다른 유리 보틀에 담긴 것은 로즈 향을 품은 핑크빛 여성 향수, 도나다. 여성스러운 로즈 에센스에 톡 쏘는 베르가모트, 무개같이 느껴지는 이페리언 레더, 파슬리, 바닐라를 기하학 관능적인 플로럴 향을 완성했다. 50ml 12만8천 원. 문의 02-3443-1805. *by 에디터 권유진*

CNP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 수분과 영양 공급 효과가 탁월한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담겨진 미스트.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듯한 사용감이 특징이다. 인가처럼 미샤에게 분사되어 메이크업 수정 전 사용하기도 좋다. 100ml 1만5천 원. 문의 080-220-0707. *by 어시스턴트 김수민*

바버리 뷰티 프레스 글로우 루미너스 플루이드 베이스 패션 하우스의 메이크업 제품임에도 정교한 텍스처를 구현하는 바버리 뷰티의 프레스 글로우. 수분 함유량이 55%에 달해 소량만 사용하는 것으로도 피부에 빛을 선사한다. 촉촉하고 광택이 있는 피부 표현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30ml 5만8천 원. 문의 02-6002-3200. *by 에디터 배미진*

오향아카데미 클라보케이션 알타이 카비 CC쿠션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 양태오의 네트 패턴을 활용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CC쿠션. 자꾸만 깨지고 싶은 예쁜 패카지가 단연 돋보인다. 촉촉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CC쿠션답게 갖바를수록 피부 광채가 더욱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5g(44개입/리플) 7만 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권유진*

알라야 파리 향수 매혹적이면서도 리치향에서 시크한 패션 피플이라면 꼭 하나쯤 소장하고 싶어 하는 이 세련된 알라야의 첫 번째 향수. 간결한 패카지부터 은근한 매력의 보드라운 향기까지, 패션 하우스 향기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았다. 50ml 13만 원. 문의 02-3447-9630. *by 에디터 배미진*

아네다 샴푸 드라이 샴푸 99.8% 자연 유래 성분의 피부더 미스트. 운동 후나 긴 여행을 떠날 때, 외출하기 전 사용하면 헤어스타일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 단순히 피부를 제하는 것뿐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까지 갖춘 매력적인 제품. 케이스를 흔들어 알러지 가볍게 뿌리거나 하면 끝. 행를 필요 없이 정갈 완료하다. 56g 3만4천 원. 문의 02-3440-2905. *by 에디터 배미진*

랑콤 어드밴스드 제-피피 오일 액티브이팅 컨센트레이트 출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며 랑콤의 얼굴이 된 제-피피. 바르자마자 얼굴에 착 감기는 끈적한 텍스처는 바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만족감을 준다. 대용량을 구매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제품이다. 30ml 11만 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배미진*



a beautiful Gift

사랑과 기쁨, 설렘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는 기꺼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한없이 감사했던 분들께 의미 깊은 선물을 하고 싶다면 시슬리의 베스트셀러를 눈여겨보자. 내가 꼭 받고 싶었던 귀한 선물을 선사하는 순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특별해질 테니.



1 (왼쪽부터) 오 뒤 소와르 오드 빠르몽, 시슬리아이 앤 릴 콘투어 크림, 시슬리아이 글로브 안티에이지, 2 시슬리의 베스트셀러 연갈 선물로 준비했다. 배우 조던연. 3 2015 소와르 드 퀴 올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상대방을 미소 짓게 만드는 선물, 시슬리
 '잘 고른 선물'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값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시슬리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라면 누구라도 반가워하는, 실패 없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여자들끼리 모이면 빼놓지 않는 주제가 바로 '부디'. 더 좋은 피부를 위한 고민은 평생의 숙제와도 같다.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 모든 여자는 예뻐지길 꿈꾸지 않는가.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다. 당선이 여지없는 사실을 시슬리 안티에이지의 대명사 '시슬리아이 글로브 안티에이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알려드려야. 친한 절음을 담보로 나를 길러준 부모님께 잃어버린 젊음을 되돌려드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천연 식물, 비타민, 미네랄의 완벽한 상호작용이 눈에 띄게 탄력 있고 밝아진 피부를 선사할 것이다. 디크서클과 부기가 완화되고 유헤 환경으로부터 연약한 눈가와 입가를 보호해 젊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시슬리아이 앤 릴 콘투어 크림'도 좋은 선택이 될 듯. 시슬리의 시그니처 성분인 파시니 파보나기를 함유해 탄력있는 눈가를 만들어주는 고농축 아이오립 크림이라 부모님 외에도 25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아이템이다. 남녀 할 것 없이 시기에 쫓겨는 현대인이려면 에센스와 로션의 기능을 합한 '시슬리 에펠씨옹 에폴로지'도 대안이 될 수 있다. 1980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제품으로, 세이빙 후 바르면 피부 진정 효과를 발휘해 남성들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후각은 오감 중 가장 오랜 기억력을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향을 골라 하는 선물에는 '나를 기억하라', '공유하자'는 뜻이 담겨 있어 꽤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늘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어 하는 그녀에게는 스티디셀러 향수 '오 뒤 소와르 오드 빠르몽'이 제격. 상큼한 시트러스와 우디 계열의 고상하고 매혹적인 자연 향이 어우러진 유니크한 향기로 국내외 셀러브리티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당신은 특별하단다는 의미를 전하고 싶다면 2015 소와르 드 퀴 올리데이가 선택스 낚는 선택이 될 것이다. 무수한 별들 아래 달빛이 비치는 로맨틱한 무드를 담아낸 딥 블루 보틀이 하나의 조각 작품 같은 데다 오직 대백화점에만 만나볼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더 특별하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에게, 가장 고마운 분들께 기꺼이 드리고 싶은 시슬리의 베스트셀러. 사용할 때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할 것 같은 선물도 될 것임에 틀림없다.

직접 사용해보고 작성한 전도연의 선물 리스트
 선물의 기본은 받는 이를 배려하고 정성을 담은 것. 특히 상대방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모든 선물은 성공한다. 배우 전도연도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과 나는 대화를 떠올리며 오랜 시간 곁에서 세심하게 선물 리스트를 작성한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이들의 이름을 적으며 추억을 되짚는 그 시간은 그 자체로 한 해를 정리하는 의의와도 같은 셈. "선물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스럽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만족스러웠던 물건을 전하는 것만큼 기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믿을 수 있고, 상대방이 저와 같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 상상하는 순간, 선물을 마련하는 즐거움이 배가되죠. 그래서 저는 소중한 분들께 시슬리의 제품을 선물로 준비해요. 받는 분들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피부가 좋아졌다, 덕분에 어려웠던 거 두고두고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올해도 그녀는 선물 리스트에 어김없이 시슬리의 제품을 올렸다. 언제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싶어 하는 친구에게는 '오 뒤 소와르' 향수를, 항상 시기에 쫓겨며 바쁘게 하루를 사는 친구에게는 에센스와 로션의 기능을 하나로 합한 '시슬리 에펠씨옹 에폴로지'도 선물할 셈이다. 어느 때처럼 올 한 해 역시 열심히 달려온 자신에게는 '시슬리아이 글로브 안티에이지'를 선물하며 스스로 격려와 칭찬을 할 예정이라고. 문의 080-549-0216 *에디터 배미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시슬리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시슬리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에센스와 로션이 결합되어 이상적인 피부 밸런스를 찾아주는 '시슬리 에펠씨옹 에폴로지'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 **증정품** 시슬리 에펠씨옹 에폴로지 체험 샘플 4ml ◆ **기간** 2015년 12월 23일(수)~10일(목)
 ◆ **교환 매장** 전국 백화점 시슬리 매장 ◆ **문의** 080-549-0216
 ※ 증정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winter Chic

아웃도어 웨어에 불과했던 다운 재킷에 럭셔리 이미지를 부여해 패딩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몽클레르(Moncler) 하이엔드 다운 재킷의 시초이자, 늘 새롭고 신선한 구스다운 웨어를 선보이는 몽클레르가 이번 시즌, 보기만 해도 포근하고 따뜻한 다운 재킷과 함께 감각적인 토털 룩을 완성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최고급 품질의 프랑스 구스다운을 사용해 가볍고 따뜻한 것은 물론, 세탁 시 다운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특별한 기술을 다한 몽클레르의 하이엔드 윈터 컬렉션을 지금 바로 만나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네그리인, 소매, 재킷 밑단에 풍성하고 부드러운 양털을 매치한 베이지 컬러 여성 다운 재킷, 무이한 스러인 실루엣으로 날씬하고 세련된 룩을 자랑한다. 3백72만원 **몽클레르 그레노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여성 스포츠 모티프가 포인트인 블랙 스웨트셔츠 70만원 **몽클레르 메인**, 보송보송하고 포근한 양털이 시원스러운 여성 슬리퍼 53만원 **몽클레르 메인**.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키, 레드, 블랙의 컬러 조합이 세련된 여성 니트 82만원 **몽클레르 그레노블**, 그레이 푼스 퍼플 다운 구스다운 여성 백팩, 27X42cm, 97만원 **몽클레르 메인**, 내부에 블랙 양털을 더해 따뜻하고 착용감이 포근한 여성 레더 부츠 72만원 **몽클레르 메인**, 다운 재킷의 곱창을 연상케 하는 디테일이 돋보이는 소가죽 여성 크로스백, 25X14cm, 64만원대 **몽클레르 메인**.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한 브라운 컬러가 멋스러운 소가죽 남성 워커 84만원 **몽클레르 메인**, 토트백으로도 하단에 부착된 스트랩으로 백팩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의 보스톤 백, 48X25cm, 1백3만원 **몽클레르 메인**, 따뜻한 다운 재킷에 클래식한 모조털 다재 세로띠를 강조한 남성 다운 재킷 3백19만원 **몽클레르 그레노블**, 내부의 양털 디테일이 특징인 남성 스웨이드 스니커즈 86만원 **몽클레르 메인**.



3SERIES로 유명한 아시시테 이세영, 김수빈



(왼쪽부터 차례대로) 광택이 도는 크로커 텍스처를 표현해 화려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 후드 다운 재킷 3백29만원 **몽클레르 메인**, 클라치로도 크로스 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양가죽 퀄리티 미니 백, 16X12cm, 75만원 **몽클레르 메인**, 클래식한 디자인에 스웨이드와 다운 재킷을 접목해 포괄한 스타일을 완성한 베이지 남성 다운 재킷 3백54만원 **몽클레르 메인**, 문의 02-514-0800 에디터 권유진

One and only

클래식하면서도 귀족적인 디자인, 시간을 초월한 우아함, 엄선된 최상급 소재, 이탈리아 장인들이 빚어낸 정교한 디테일로 무장한 '리키 앨리게이터' 백. 개인의 취향을 옷이 반영하는 맞춤형 주문 제작 서비스로 만든 '메이드 투 오더 리키 백'이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나를 위한 가방'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독보적인 우아함을 완성하는 '리키 앨리게이터' 백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해온 디자이너 랄프 로렌. 자신의 영리한 뮤즈이자 아내인 리키 로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리키 백 역시 시간을 초월한 우아함과 클래식하면서도 귀족적인 디자인이 빛나는 제품이다. 보다 고급스러운 취향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표출하기 위해 이그조틱 레더 백을 선호하는 최근 패셔니스타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앨리게이터 버전. 유행을 타지 않고 시즌에 상관없이 들 수 있는 디자인인 데다 포멀 룩이나 캐주얼 룩 모두에 완벽하게 매치되는 동시에 고급스러움 또한 잃지 않았다. 브랜드 로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대신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빚어낸 정교한 디테일로 마무리해 브랜드 고유의 기술과 아이덴티티까지 현명하게 녹여냈다. 리키 앨리게이터 백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1등급 악어 네 마리, 그중에서도 뱀가죽만 고수하니 가죽 촉감은 여타 악어가죽에서 느껴지는 타프함이 아닌 부드러운 기운이다. 까다로운 선택과 준비 과정을 거친 앨리게이터 가죽은 고반도의 태닝 과정을 거치고, 리키 백 고유의 럭셔리함을 더하기 위해 소프트하면서도 은은한 광택이 나는 세미 매트 밀레니엄 파니로 마무리한다. 남디르고 싶다는 당신의 욕망은 재단, 컷팅, 마무리까지 이탈리아 장인의 정세한 손길로 이루어지는 리키 앨리게이터 백이라면 100%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 메이드 투 오더 리키 백

한눈에 어느 브랜드의 어떤 컬렉션 제품인지 드러내는 핸드백은 이제 더 이상 우아함도, 멋스러움도 없다. 진정한 레이디들은 오직 나를 위한 가방'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개인의 취향을 옷이 반영해 완성하는 주문 제작 핸드백이라면 평생 곁에 둘 만큼 특별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리키 앨리게이터 백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 주문 제작이 가능한 메이드 투 오더 리키 백(Made to Order Ricky Bag) 서비스를 제공, 현대 소비자 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고객은 네 가지 중 사이즈를 정하고 20가지 컬러 팔레트 가운데 원하는 앨리게이터 가죽 컬러를 고르면 된다. 여섯 가지 색깔의 악어가죽 인감, 그리고 골드와 실버 두 가지 하드웨어 중 선택을 모두 미처면 드디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리키 백을 소장할 수 있게 되는 것. 2008년 오픈한 파리 몽테뉴가 랄프 로렌 뮤티크에서 처음 시작한 메이드 투 오더 리키 백 서비스는 현재 뉴욕, 시카고, 베를린, 런던, 밀라노, 모스크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프레스티지한 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랄프 로렌 도스파크 스토어에서 주문 가능하다. 스토어 1층 액세서리층에 마련된 데스크에는 메이드 투 오더 리키 백을 위한 전용 스위치 북이 준비되어 있어 소재와 컬러감을 직접 보며 선택,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가방인 동시에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핸드백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지 않을까. 문의 02-545-8200 에디터 배미진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어시스턴트 이서영, 김수민



발렌티노 하면 스타드를 떠올릴 만큼 브랜드의 상징이 된 피라미드 형태의 스타드 장식을 다한 아이템은 클래식한 디자인과 모던함이 공존하고, 과하지 않지만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위에서 아래로) 스타드 장식의 숄더가죽 장갑 73만원, 금색 스타드가 눈에 띄는 브레이 슬릿, 버클을 채우는 형식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버건디와 블랙 모두 33만원, 은은한 파스텔 톤이 사랑스러운 밴드 형식의 브레이 슬릿 모두 33만원, 작은 스타드 장식이 종종씩 박힌 화이트 브레이 슬릿 37만원,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지금 가장 트렌디한 패션 파퓰러의 스트리트 쿿에 항상 함께하는 것은 발렌티노의 라스터드 백과 슈즈.

(위에서 아래로) 버건디 컬러의 마이 라스터드 백 스틸 사이즈 2백50만원, 은은한 광택의 숄더가죽을 사용한 라스터드 부티, 내구성이 좋은 나미 가죽 스트랩에 스타드로 시크한 무드를 가미했다. 1백50만원,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Stud attraction

시즌을 거듭할수록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발렌티노의 라스터드 컬렉션, 시대를 초월한 기품과 시크한 무드를 즐겨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2015 F/W 시즌 '마이 라스터드' 백을 선보이며 잇 백의 시작을 알렸다. 이 아이템 역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테일인 스타드를 가장 밑바닥에 장식해 발렌티노 특유의 모던함을 보여준다.

(위에서 아래로) 부드러운 숄더가죽을 사용한 마이 라스터드 백, V 로고를 새긴 내임 태그 장식과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 블랙 컬러의 미디엄 사이즈 3백30만원, 화이트 컬러의 스몰 사이즈 2백80만원,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어시스턴트 이서영, 김수민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할 만큼 인기 높은 라스터드 힐은 매년 컬러와 소재에 변화를 주며 선보이는 발렌티노의 대표 아이템.

(위에서 아래로) 피라미드 형태의 스타드 장식이 발등을 타고 이어져 모던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주는 라스터드 힐 1백20만원, 우아한 골드 컬러의 라스터드 키튼 힐 1백2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3 에디터 배미진

timeless Suitcase



1 장인 정신과 실용성을 함께 지닌 하트만의 하드 캐리어 7R 마스터. 눈이 조절 가능한 멀티 스텝(지 스텝)에 가죽을 덧댔다.
2 하트만의 정교한 잠금장치 옆에 벨팅 레일을 사용한 트림을 더해 클래식하다.
3 여행 가방의 생명이 바퀴 조립까지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소프트 타이어를 쓰고, 주름 재킷만 볼 배어링-미운티드 멀티 휠 시스템을 적용해 회전할 때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4 가방의 윤곽을 만들고 형태를 내는 마감까지 모두 장인의 손길로 거친다.
5 럭셔리한 무드의 7R 마스터 로즈 골드 컬러.



여행은 모험이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다는 '모험 유전자'를 의미하는 7R에서 받은 영감으로 탄생한 하트만의 캐리어 '7R 마스터' 역시 여행을 위한 트롤리다. 장인의 손끝에서 2백50단계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7R 마스터'는 현대 모험가들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걸작이 되어줄 것이다.

근세기 미국 대통령의 가방 '하트만'

좋은 브랜드는 언제나 명사와 함께한다. 하트만도 마찬가지. 1877년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창업자 조셉 S. 하트만(Joseph S. Hartmann)이 창립한 가방 브랜드 하트만(Hartmann), 린든 존슨과 조지 워커 부시를 포함해 근세기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재직 기간 동안 애용했을 정도로 오랜 시간 미국 상류층의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고객의 뛰어난 품격과 고귀함은 그의 여행 가방에서도 느껴져야 한다'라는 제품 철학을 바탕으로 한 덕에, 선박용 여행 가방부터 기차 객실용 트렁크, 오늘날의 기내용 캐리어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교통수단,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하트만의 가방 역시 우아한 모습으로 진화해올 수 있었던 것. 2012년 웹사이트 글로벌에서 하트만을 인수한 후부터는 유럽, 아시아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아메리칸 감성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가벼운지, 내구성이 좋은지, 수납 구조나 잠금장치가 잘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 게다가 최첨단 공학적 설계를 반영한,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에 최고 소재와 기술로 마감했으니,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장인 정신을 담아낸 캐리어 '7R 마스터'

최근 여행 가방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눈은 더 간간해지고 있다. 캐리어는 오래도록 사용하는 아이템이기에 소재나 휠터미 등 바탕으로 내구성과 견고함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패션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디자인 취향까지 염두에 둔다. 여행 중 캐리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 바퀴나 손잡이, 무게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는다. 최근 하트만이 새롭게 선보인 하드 캐리어 '7R 마스터'는 이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프리미엄한 제품이다. 7R 시리즈의 유니크한 셸(shell) 디자인은 그대로 살렸지만, 가방 외형에 윤곽을 내는 프레임 작업부터 광택을 내는 폴리싱, 바퀴 조립, 로고 부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장인의 정교한 수작업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확연한 차이를 만든다. 7R 마스터 1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만 2백 개 이상. 40여 개의 특수 도구를 사용해 총 2백50단계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시스템을 차례로 밟아가다 보면 '명품', '걸작'이라는 단어가 절로 나온다. 소재는 최고급 알루미늄을 택했다.

첫인상은 현대적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용감이 더해질수록 마치 고급 가죽 제품이 그러한 것처럼 은은한 광택의 고급스러운 매력이 배가된다. 캐리어가 아무리 튼튼해도 손잡이나 바퀴가 망가지거나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7R 마스터'는 손잡이 부분에 가죽을 덧대어 캐리어를 끌 때 한층 편안한 그립감을 선사한다. 바퀴에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소프트 타이어를 쓰고 '볼 베어링-미운티드 멀티 휠 시스템'을 적용해 부드럽고 조용한 이동과 회전을 가능케 해 만족감을 더했다. 제품의 실용성과 그것을 가능케 한 장인 정신, 사용하는 이의 편의를 우선시한 구성까지, 사용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타임리스(timeless) 디자인과 수작업으로 완성한 장인 정신의 결합으로 탄생한 '7R 마스터'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02-3448-5914 에디터 배미진



french art de Vivre

루이 15세와 루이 18세, 나폴레옹이 편애했고 지난 2백50년 동안 '왕의 크리스탈'이라 불리며 크리스탈을 예술로 승화한 바카라는 현재의 트렌드를 압축해 내일의 클래식을 창조하고 있다.

바카라가 전하는 프렌치 라이프스타일, 크리스마스 셀렉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이자 데카데터인 캐롤린 로엘(Carolyn Roehm)은 <엘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유명 TV 프로그램과 칼라바레이션 작업을 한 것은 물론, 다수의 사적 출판물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 언제나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셋새터의 아이코닉으로 유명한 캐롤린 로엘은 최근 자신의 호화로운 자택을 바카라의 제품들을 위해 공개해 눈길을 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그녀의 자택은 바카라의 크리스마스 컬렉션을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었는데, <엘미피피> 매거진과 작업해온 유명 포토그래퍼 실브 베케(Silve Becket)가 촬영을 맡았다. 사랑하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바카라의 훌륭한 컬렉션들이 전하는 행복을 알리기 위해 이 감동적인 사나리오를 생각해냈다. 그녀, 바카라의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가득 찬 방, 집 안 구석구석에 자리한 가구와 소품이 현대 아우라진 컬렉션은 소중한 크리스마스의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려는 한 장의 초대장이다.

역사 속 예술이 된 크리스탈, 바카라

세계적인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라는 1764년 파리 동북쪽, 독일과 벨기에 국경 부근인 로렌 지방의 조그만 마을 바카라에서 탄생했다. 초기부터 완벽함을 목표로 모든 제품을 제작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시대에 황실에서 모든 유리그릇은 바카라 것을 쓸 정도로, 바카라 크리스탈 공장은 1817년 크리스탈 제품을 내놓기 이전부터 유명세를 떨쳤다.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과거 고객들의 주문서는 마치 역사책을 보는 듯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인물로 가득 차 있다. 1823년 루이 18세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 주문한 테이블 세트를 시작으로, 인도 군주가 요청한 가구,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를 위한 정당한 상들리에, 일본 황실을 위한 매우 정교한 의뢰물과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니셜을 새긴 물잔까지, 바카라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크리스탈의 환상적인 스펙트럼으로 프랑스의 예술을 전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과 장소에서도 어김없이 바카라 제품이 빛을 뿜어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스트발의 돌비추체 공장에 지리한 웅장한 상들리에 컬렉션에서부터 나폴레옹 3세가 루브르와 튀일리 궁전을 위해 의뢰한 제품들까지, 이후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 영국의 윈저 공작 부부, 모나코 왕자 레오와 그레아스 왕세자비, 교황 베네딕토 15세, 중남미 각국 대통령, 이집트·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모로코 왕족 등의 인물들을 매혹시켜왔으니, 바카라의 2백50년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통과해 전 세계로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시아 최초 메종, 서울 남산에 오픈

이렇듯 2백50년 동안 최상의 장인 정신과 프랑스식 삶의 예술(Symbol of French Art de Vivre)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바카라가 아시아 최초 메종 바카라를 서울 남산(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70)에 오픈한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다. 메종 바카라는 단돈 매장의 개념을 넘어 예술가들의 교류와 브랜드 정신을 이어가는 곳을 의미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어지는 메종에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들리에와 테이블 웨어, 베이스, 화려한 주얼리를 채울 것이다. 12월 3일 오픈을 기념해 188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특별히 주문한, 높이 4m에 이르는 2델라 브루스워던 상들리에를 특별히 전시할 예정이다. 유려하고 완벽한 디자인과 우아하기까지 한 장인의 손끝 빛의 마법을 선사해온 바카라의 컬렉션이 국내에 진출해 앞으로 두 도리의 일상에 더 많은 빛을 더해주는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문의 02-3448-3778 에디터 배미진



1 캐롤린 로엘이 데카데터인 바카라의 크리스마스 데카레이션. 2 남산 메종 오픈을 맞아 선보이는, 1886년 러시아 황제를 위해 만든 2델라 브루스. 3 기공부에 두어 디자이너의 크리스탈 테이블 램프와 폴리싱 장식의 램프 세트. 4 여성 기저기로 다른 카탈로니아 크리스탈 진. 5 마르셀 빈더스가 디자인한 화이트 마블 스탠드 레드 크리스탈 화병.





Amorous Touch
 심플한 옷차림에 스와로브스키의 터치만으로 매력적인 룩을 완성한 미란다 커. 가벼운 어깨가 드러나는 옷에는 화려하게 반짝이는 주얼리를 레이어해볼 것.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유선형 워치와 함께 은하수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브레이슬릿, 여러 개를 레이어링한 듯한 링과 크리스탈 네크리스로 한층 돋보일 수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부드러운 곡선형 베젤에 약 1천7백 개의 라이트 골드 톤 크리스탈을 세팅한 크리스탈린 오벌 워치 블랙 51만원, 스타 모티브 펜던트와 체인, 크리스탈을 세팅한 이어링으로 구성된 듀오 스타 네크리스 세트 18만5천원, V자 펜던트를 부착해 두 가지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엘타 네크리스 스몰 로즈 골드 16만5천원, 앙증맞은 눈송이 모티브의 골드 펜던트와 크리스탈 펜던트 네크리스, 이어링으로 구성된 듀오 스타 네크리스 세트 18만5천원, 스타드형 이어링과 이어링 재킷을 부착한 아트워크 투웨이 이어링 14만5천원, 심플한 아트워크에 감동한 레드 크리스탈로 포인트를 준 듀오 펜던트 하트 13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제품 사진 배경: 조수민



깨끗하고 파스텔 보이는 컬러의 여성 장미 '오트 다운'. 내부에 양질의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과 함께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며, 탈착 가능한 라운 퍼 트러닝이 멋스럽다. 59만8천원 **르코프 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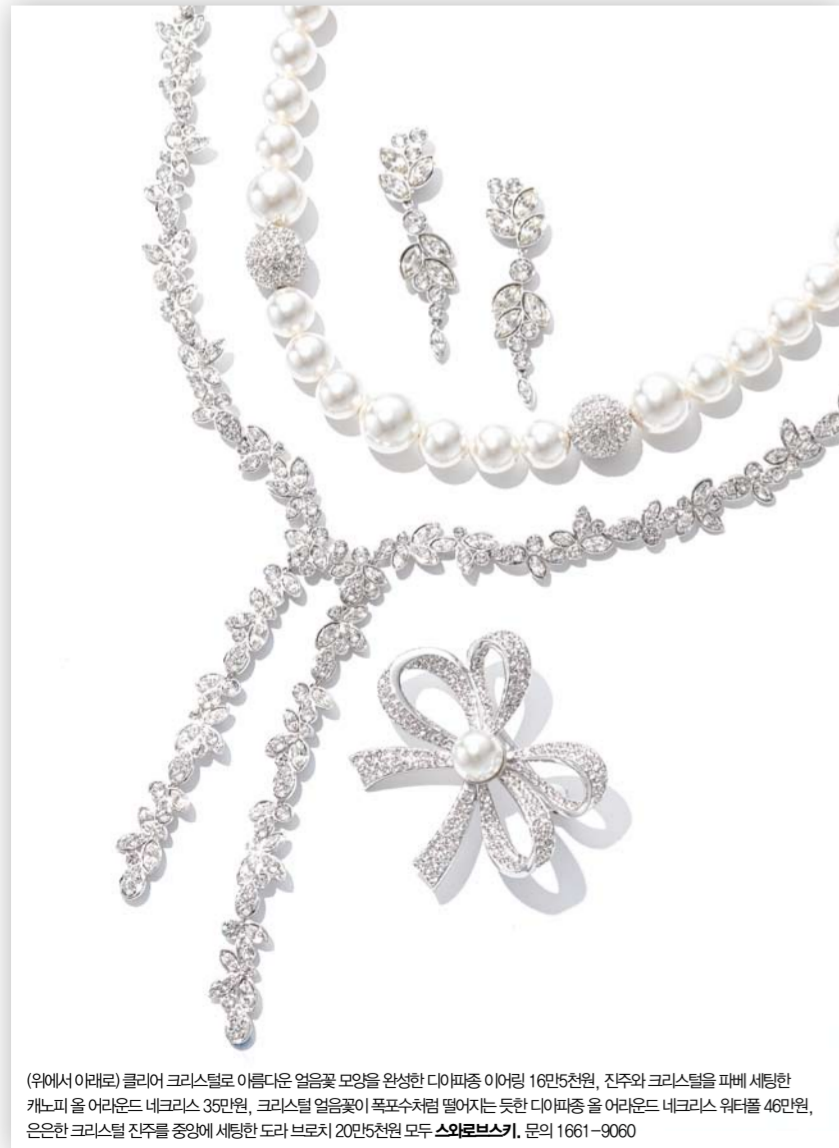
와이드한 소매와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사랑스러운 캐피트 스타일의 장미. 딱딱한 충전재로 스타일링과 가벼운 착용감을 모두 갖는다. 32만8천원, 쿠셔닝이 우수한 파일론 미드폼을 사용해 오랜 시간까지도 착용감이 편안한 여성 겨울 골프 부츠 29만8천원, 모두 **르코프 골프**.

One shiny day

스와로브스키의 뮤즈 미란다 커의 상상 속 첫눈은 반짝임으로 가득한 크리스탈이 되어 주얼리로 피어났다. 눈꽃송이의 모습을 클리어 크리스탈로 흠뻑리듯 표현한 '디아파종(Diapason)' 네크리스와 함께하는, 설레는 홀리데이의 특별한 순간.

Stylish comfort

골프 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세련된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 최고급 충전재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르코프 골프가 울겨울, 가벼운 착용감과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세련된 프리미엄 구스다운 아우터를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에서 아래로) 클리어 크리스탈로 아름다운 얼음꽃 모양을 완성한 디아파종 이어링 16만5천원, 진주와 크리스탈을 피베 세팅한 캐논피 올 아라운드 네크리스 35만원, 크리스탈 얼음꽃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듯한 디아파종 올 아라운드 네크리스 워터폴 46만원, 은은한 크리스탈 진주를 중앙에 세팅한 도라 브로치 20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Simple & Chic
 오래도록 스와로브스키의 뮤즈로 활동해온 미란다 커는 주얼리 스타일링의 진수를 보여준다. 간결하면서도 존재감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하고 싶다면 심플하고 매시한 수트에 투명한 크리스탈 주얼리를 선택할 것. 영롱한 빛을 발하는 클리어 크리스탈 네크리스와 이어링은 우아한 여성미를 더해주어 매력을 배가시킨다. 에디터 **베이진**



스워로브스키 촬영: 조수민

신뜻한 옐로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는 고품질 프라우엔 덕다운 장미. 넓게 혹은 좁게 변형할 수 있는 네크리스와 하리 실루엣을 잡아주는 디테일로 매력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39만8천원, 체인 디테일이 고급스러운 세하인 퍼 소재의 구마가 11만8천원, 모두 **르코프 골프**.



앞과 뒤의 칼럼을 리듬감 있게 배치하고 하리 밴드 디테일을 더해 신체의 굴곡을 더욱 슬림하게 연출하는 오프 다운 장미. 톤 다운된 그레이 컬러에 포근한 느낌의 포켓 디테일을 더해 패셔너블하다. 59만8천원 **르코프 골프**, 문의 02-2007-3343 에디터 **베이진**



the essential Focus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동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베를라어(Wetzlar). 구시가지와 인상적인 성당이 자리 잡은 이 호젓한 소도시에는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 하나는 세계 3대 시성인 대문호 괴테의 첫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배경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이 낳은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Leica)를 내세운 광학 중심지라는 점이다. 전통과 첨단 조화로 괴테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는 듯한 라이카의 고향에 갔다.



1백여 년 전, 라이카의 출발점은 혁신이었다. 무겁고 거주장스러운 카메라가 지배하던 그 시절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35mm 스틸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브랜드가 바로 라이카다. 카메라에 별 관심이 없는 이들조차도 선망한다는 이 브랜드는 유럽에서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끌었다는 베르테르라는 걸출한 소설 캐릭터를 빚어낸 베를라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도시의 중심가를 걷노라면 35mm 라이카 카메라 '우르리히(Ur-Leica)'을 발명한 선구자 오스카 바르너의 초음속 칼리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는 바로 그 지점(photo point)에 다다르게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벽에는 작은 팻말이 달려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구가 쓰여 있다. 2014년 라이카 카메라는 베를라어로 돌아왔노라고, 실제로 잠시 고향을 떠났던 라이카는 지난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베를라어로 본사를 이전했고, 카메라 렌즈를 연상시키는 근사한 새 시옥도 선보였다. 지난 10월 말, 신제품 발표회가 열린 이 사옥에는 사진을 좋아하는 이라면 가슴이 설날 만한 손님들이 전 세계에서 대거 모여들었다. 그중에는 베르너 전쟁 중 발가벗은 채 내달리는 소녀의 모습을 담아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알린 사진의 주인공, 포토그래퍼 닉 우르도도 있었다. 라이카는 1백 년이 넘는 역사에 걸맞게 무수한 영작을 남겨온 카메라로도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납품된 틴스스퀘어에서 카스를 하는 남녀를 촬영한 일명 '틴스스퀘어의 카스', 알베르트 코르다가 촬영한 쿠비 전설적인 혁명가 체 게바라 등 라이카로 촬영한 수많은 걸작이 있다. 위대한 사진작가이자 세계 최고의 보도 사진작가 그롬 매그너의 창시자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라이카 카메라를 '눈의 연장(延長)'이라고 여겨 몸에서 떼지 않았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영혼에 호소하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지금도 라이카 카메라를 걸치고 있는 이들끼리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낯선 사람들도 서로 반가워하는 라이카 카백신이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단지 카메라의 역사를 화려하게 수놓아왔다는 이유로 한자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필름 카메라 시대가 저물면서 다른 브랜드처럼 한때 정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라이카는 '클래식'으로서의 정통성과 디지털로의 진화를 조화시키면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해왔고, 그 누구도 견주지 힘든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립했다. '지금에 이르러까지 라이카의 여정은 길고 굴곡이 많았

어요. 하지만 우리의 뿌리인 장인 정신을 지켜냈죠. 그렇다고 그저 전통적인 카메라 제조업체로 볼 수는 없어요. 장인 정신이 갖는 기술력과 뚜렷한 브랜드 정체성을 지닌 워치메이커와 비슷하죠." 라이카 회장인 인드레이스 카우프만 박사는 딱히 '라이카'라고 자랑할 만한 경쟁 업체도 없는 독특한 브랜드 포지션을 누리는 라이카의 현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실 라이카는 아시아 시장에서는 카메라업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릴 정도로 럭셔리로 통한다. 카우프만 박사는 '카메라는 워치 사용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품목이라 라이카의 방식은 패션의 그것과는 다르다'면서도 '솔직히 에르메스에서 배우는 점도 많다'고 웃었다(실제로 일본 시장의 경우, 에르메스 재팬이 라이카 재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소비자가 어떤 것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쇼핑 경험에서 어떤 것을 버리는지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실제로 에르메스 방식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남성층에 단독 매장을 열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라이카의 행보에서 그런 면모가 엿보인다.

전통을 끌어안고 진화를 거듭하다

오즘 디지털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라이카의 모습을 보노라면 애플이 연상되기도 한다. '애플은 훌륭한 브랜드지만, 라이카는 대를 남기려면서 물려준다는 점에서 소비 주기가 빠른 애플하고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 경험을 중시한다는 면에서는 닮은 점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세대에 영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위대한 전통을 끌어안고 가고 있지만 그 전통은 혁신으로 접합된 역사이기도 했다. 점을 라이카 사람들은 강조한다. 사진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연결하고 공유하게 하는 도구지만 적어도 그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라이카의 초점기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스마트 기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는 데 맞춰진 이유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도 준비 중이다. "첨단을 흡수하면서도 우리 헤리티지의 연결 고리를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용성(usability)'입니다. 이를테면 신제품도 과거에 나온 모든 렌즈와 호환되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행사에서 발표된 2천 4백만 화소의 풀 프레임 센서를 탑재한 프로페셔널 미라리스 카메라 라이카 S1은 별도의 아답터 없이도 라이크 T 시스템 렌즈를 마운팅할 수 있으며, 아답터를 활용하면 라이카 S, M, R 등 라이카의 전설적인 렌즈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하지만 카우프만 박사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그 흐름을 담은 신제품을 내놓더라도 라이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사진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We are taking care of photography)." 글 고희준(베를라어 현지 취재)



1 2013년 소다미 경매에서 애플의 디자인 수장 조나스 아이젠가 디자인한 라이카 S1이 1990만달러에 낙찰된 사례는 라이카 브랜드 파워를 보여준다. 2 1914년에 나온 라이카의 시초, 우르리히(Ur-Leica). 3 독일 소도시 베를라어에 자리 잡은 라이카 본사 신사옥. 4 라이카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베라본다 사진작가 일제 방(Else Bing). 5 최근 이심차게 선보인 신제품 미라리스 카메라 라이카 S1과 함께 선보인 표준 렌즈. 2천4백만 화소의 풀 프레임 센서를 장착한 라이카 S1은 1/8000초에서 30분까지 광범위한 셔터 속도를 지원하며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6~8 1백여 년 전 오스카 바르너가 개발한 35mm 스틸 라이카 카메라로 처음 가리 풍경을 찍었다는 베를라어 아이젠마르크(Eisenmarkt) 광장. © Jinyong Kim



imbued with ART

오묘한 쪽빛 바다와 눈이 시릴 정도로 맑은 하늘, 오염되지 않은 짙은 녹음. 일본 가가와 현에 있는 섬 일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대자연 속에서 경탄할 만한 작품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일품인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술의 섬'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발전의 논리를 들이댔으로써 주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거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공생의 방식이 발달로 예술인 듯하다.

21세기의 핵심 인재군으로 지칭되는 '창조 계급(creative class)'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을 들뜨게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약소천하에 만들기도 했다. 자사사회에서 창조 계급에 속하지 않으면 마치 별 쓸모가 없는 존재인 양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자와 기술, 관용을 모두 갖춘 창조 도시를 언급할 때면 으레 등장하는 '문화 예술의 힘'도 그렇다. 결국 문화 예술이 지닌 창조적인 힘을 실려 사회적인 존재를 이끌어내고 성장을 거듭하게 한다는 논리는 굳이 '도약의 실'을 원치 않는, 그저 소소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버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일본 시코쿠 가가와 현에 자리 잡은 나오시마 섬과 그 주변 섬들은 바로 그런 이들이 다수 살아가는 곳이다. 한 기업인이 30년 전 버려진 사바미 한 이 일대를 재개발하고자 대대적으로 펼친 프로젝트 덕분에 나오시마는 '예술의 섬'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그 커다란 영예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본디 섬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섬 주민들을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가장 소중한 주제로 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했고, 또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술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느 느린 걸음마다 가슴이 설레는 나오시마 섬

나오시마 섬으로 향하는 페리만 타고 벌써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하다. 쪽빛 바다를 유유히 가로질러 선착장에 도착하면 구시마 이요이의 빨간 호박이 먼저 눈길을 맞춘다. 그리고 시선을 위로 향하면 솜 속하도록 정갈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드러난다. 맑다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녹음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곳에는 꼭 가봐야 할 미술관도 세 군데나 있지만 자연의 풍광에 취해 발걸음을 느릿느릿 옮기게 된다. 먼저 나오시마를 예술로 재개발시킨 베네치아 그룹의 이름을 딴 베네치아 미술관, 돌담길을 따라 언덕으로 올라가면 나타나는 이곳에는 입구에서부터 세자르와 자코메티의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데이비드 호크니, 리처드 롱, 제스퍼 존스, 사이 톨볼리, 도널드 저드, 브루스 나우먼... 작가 이름을 알릴이 열거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생경한 현대미술의 수작들이 공간을 과하지 않게 채우고 있다. 건물 2층으로 연결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야외 정원으로 나그린 가슴이 확 트인다. 배 모양 설치물에 가운데 큰 구멍이 돌린 신로 오카에의 작품을 통해 저 멀리 세트해(Sea-Inland Sea)가 반짝거리면서 다가오는 듯 느껴진다. 미술관과 함께 호텔까지 들어선 베네치아 미술관도 그렇지만 나오시마 섬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자추 미술관과 생존 작가의 이름을 딴 최귀한 미술관인 이우환 미술관도 모두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 가장인 다다오가 설계했다. 이중 자추 미술관(中美術館)은 이름 그대로 지하에 있는 미술관으로 기하학 형태의 개구부 이요이는 건물 전체가 지하에 묻혀 있다. 클로드 모네, 제인스 타렐, 윌러 드 마리야, 이렇게 단 3명의 작가 작품만 전시하는데, 오로지 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이 돋보인다. 자연의 하늘빛이 곧 작품이 되는 타렐의 작품 등 자연광의 작용으로 사계절 따라 달라 보이는 작품들이 주는 감동도 대단하지만 카페에 누듯 없이 탁 트인 창으로 구름이 동동 떠다니는 광경만 바라봐도 평온해지는 곳이다. 이우환 미술관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의 대지 위에 자리해 그 자체가 '대지미술'이라 할 정도로 자연과 융화된 분위기가 부스스한 미술관에서의 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비움의 미학을 느끼게 하는 데시마 섬

나오시마 주변에는 데시마, 아누자마, 메가자마 등의 섬이 있는데, 여기서도 예술과 함께 호흡하는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열릴 예술 축제 세트우치 트리엔날레는 이 섬들을 아우르는데, 과거 축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중 원초적인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데시마는 느낌의 미학은 물론 비움을 갈구하는 이들에게는 최상의 여행지이자 명상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섬이다. 그런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카상을 받은 니시자와 류에가 지은 데시마 미술관 덕분이기도 하다. 기동 하나 없이 하얀 이글루처럼 동그란 지붕을 쓰고 있는 이 미술관 안에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인지 않은 듯하다. 그저 천장 일부가 뿔 뿔러 있어 한쪽에서는 창창한 하늘이, 한쪽에서는 초록색 나뭇 잎사귀가 보일 따름이다. 방문객들이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제야 바닥에 물방울들이 또르르 굴러가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바닥에서 솟아난 물방울들은 외길을 가기도 하고 서로 뭉치기도 하다가 다시 바닥으로 사라져버리는데, 누군가 나직한 목소리로 읊조린다. "여길 가는지도 모르게 이르러진 흐르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 같네." 빛과 바람 소리, 물방울, 공기가 함께 자연과 하나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술관을 떠날 때도 데시마의 기와 골목은 온유하고 정갈하다. 그런데 간간히 마주치는 예술 작품들은 신선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 소박한 식당 바로 옆에 서도 스위스의 유명 작가 피델리 리스트의 퍼포먼스 영상을 발견할 수 있다(나는 그리 만만한 여자(아니 예요), 나오시마와 데시마에서 전통 민가를 예술로 재단정하는 이베(家) 프로젝트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스타 박스는 첫을 수 없지만 선착장 근처 건물 사이를 걷다 보면 놀랄 만큼 현대적인 카페도 만날 수 있다. 한뼘한 줄무늬와 물방울무늬로 단장된 이 카페는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은 독일 작가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이다. 제목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땅상을 옮기기도 한다'. 재치 넘치는 작품명으로 유명한 레베르거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지만 근사한 커피와 디저트를 내주며 배사시 웃는 이곳 주인에게는 섬 사랑의 소박한 숨결이 느껴진다. 어쩌서 '섬 자체가 예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지 알법했다. J-ROUTE 홈페이지(www.jroute.or.kr)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joinroute)을 방문하면 더 생생한 일본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글 고희준



1 나시자와 류에가 설계한 데시마 미술관. 바닥에서 솟아나 다시 바닥으로 사라지는 물방울들로 빛어낸 레이 나오토의 설치 작품 베고는 텅 비어 있다. 2 오래된 카페를 현대적으로 탈바꿈시킨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 3 하늘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제인스 타렐의 'open sky'는 자추 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사진 Naoya Hatakeyama 4 배 모양 설치물에 가운데 큰 구멍이 돌린 신로 오카에의 작품 'Shipyard Works Bow with Hole'. ©SY Ko 5 베네치아 미술관 1층 바다와 벽에 각각 설치된 리처드 롱 작품 'Inland Sea Driftwood Circle'과 'River Avon Mud Circles by the Inland Sea'. 사진 제이 베네치아 하우스

SHOWROOM



샤넬 화인 주얼리 까멜리아 갈베 브레이슬릿 샤넬 화인 주얼리는 코코 샤넬이 가장 사랑한 꽃인 동백꽃을 모티브로 한 '까멜리아 갈베 브레이슬릿'을 출시한다. 꽃잎이 풍성한 동백꽃 모티브는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세라믹으로 제작했으며,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12월부터 샤넬 화인 주얼리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2-0962

티소 트레디션 오토매틱 티소는 빈티지한 스타일에 현대적인 감성을 입힌 남성 시계 '티소 트레디션 오토매틱'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온 기존 티소 트레디션 모델의 오토매틱 버전으로, 티소의 뛰어난 제품 기술력과 클래식한 디테일, 기묘세 장식, 부드러운 곡선의 케이스 등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467-8795

스와로브스키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세트 스와로브스키는 유즈 미런다 커가 디자인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컬렉션인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세트'를 소개한다. 이 컬렉션은 찬눈의 이미지를 아름다운 얼음꽃 모양의 크리스탈로 표현한 컬렉션으로, 크리스탈의 화려함이 돋보인다. 올 겨울은 네크리스와 이어링으로 구성된다. 문의 1661-9060

볼가리 모네 주얼리 컬렉션 볼가리는 엔틱 코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모네'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볼가리의 과거 빈티지 컬렉션에서 영감

을 받아 탄생한 이 컬렉션은, 과거 유물인 엔틱 코인에 불가리란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감성을 더한 아트피스다. 각각의 엔틱 코인은 불가리란의 섬세한 수작업으로 제작하며, 핑크 골드 소재의 네크리스와 링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2-2056-0171

반클리프 아펠 스위트 알함브라 뉴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은 메종의 아이콘인 알함브라 컬렉션을 재해석해 완성한 '스위트 알함브라 뉴' 컬렉션을 출시한다.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 모티브로 제작한 이 컬렉션은 사랑스러운 핑크 골드 버전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구성된 링, 흥 네크리스, 이어링, 팬던트, 그리고 브레이슬릿 등 67가지 디자인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0798-852-16123

그라프 커피 테이블 북 그라프는 CEO인 로렌스 그라프의 인생 여정과 브랜드의 히스토리가 담긴 '커피 테이블 북(Coffee Table Book)'을 공개했다. 강렬하고 아름다운 광고와 그라프 하우스의 마스터피스 사진들이 담겨 있다. 책으로 가득찬 인수급은 남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그라프의 재단인 '페이스 재단(FACET Foundation)'에 전액 기부하며, 서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문의 02-2256-6810

타파니 크리스마스 트리 타파니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타파니의 아이콘인 엔틱을 더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했다. 판고 현대화점점 1층 광장에 위치한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빈티지는 각종 오너먼트와 브랜

드의 상징인 블루 박스로 화려하게 장식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더불어 뉴욕 엠퍼 아스트 사이트 전경을 연상시키는 디스플레이, 매스저 우편함 등 다양한 볼가리를 제공하는 홀리데이 존을 함께 마련했으니, 타파니가 선사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놓치지 말 것. 문의 02-2015-7325

오메가 드 빌 컬렉션 오메가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드 빌' 컬렉션의 새로운 타임피스를 소개한다. 오메가를 대표하는 컬렉션이자 간결한 디자인이 클래식한 우드를 자아내는 드 빌 컬렉션의 시계로서, 1949년 선보인 트레져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남성 시계 '드 빌 트레져'와 파인 다이얼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재탄생한 여성 시계 '드 빌 프레스티지 듀얼'이 그 주인공이다. 전국 오메가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9-5917

리처드 밀 무르비움 RM 63-02 월드 타이머 오토매틱 워치 리처드 밀은 'RM 63-02 월드 타이머 오토매틱 워치'를 선보인다.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 신형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RM 58-01의 편리한 월드 타이머 기능을 갖춘 모델로, 만든 브러싱과 폴라싱 처리한 5등급 티타늄으로 만든 회전 베젤을 장착했다. 문의 02-2230-1286

몽블랑 그레이트 캐리어 엔디 워홀 스페셜 에디션 몽블랑은 핏이트의 아이콘인 엔디 워홀을 기리는 '그레이트 캐리어 엔디 워홀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 만년필과 수성펜, 볼펜으로 구성된 이 에디션은 펜의 보드에 스타인리스 스틸로 그의 대표작인 '캠벨 수프 통조림 시리즈'를 새겼으며, 캡 뒷부분에는 그의 명언 중 하나인 'Art is what you can get away with'라는 문장을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02-2118-6053



몽블랑

LIFESTYLE



포르세코리아 포르세 911 캐러라 4 포르세코리아는 스포티함과 인력함이 향상된 '포르세 911 캐러라 4'를 출시한다. 혁신적인 터보 엔진으로 힘과 연비 효율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깊이감을 부각한 입체적인 디자인의 후미등 스트림과 44mm 더 넓은 후면 윙 등 시류구동 차량의 특징적인 요소를 더해 시각적인 변화를 준 것이 눈에 띈다. 문의 02-2055-9110

하트만 7R 마스터 하트만은 최고급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하트 캐리어 '7R 마스터'를 새롭게 출시한다. 기존 7R의 유니크한 셀 디자인은 그대로 살리면서 최고급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다. 손잡이에는 가죽을 사용해 편안한 그림감을 선사한다. 알루미늄과 로즈 골드도 구성되며, 전국 하트만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48-5914

FASHION

루이 비통 시티 가이드 모바일 앱 루이 비통은 <2016 루이 비통 시티 가이드> 출판을 기념해 시티 가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 각 도시의 호텔, 레스토랑, 유명 갤러리와 박물관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 관련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앱을 유저들에게는 12월 21일까지 파리 편의 볼 버전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02-3432-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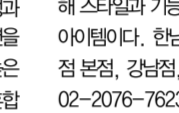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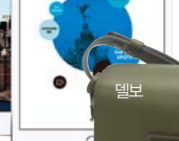
셀린느 트라페즈 백 셀린느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아이콘 백 '트라페즈 백'을 선보인다. 날카로운 디자인을 자랑하는 구조로 국내외 셀러브리티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그니처 백이다. 스몰과 미디엄 등 2가지 사이즈로 출시하며, 함께 구성된 스텝을 사용해 슬더백 혹은 토트백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540-0486

멜보 마담 백 멜보는 2015 F/W 시즌을 맞아 마담 백을 새롭게 출시한다. 1977년에 탄생한 마모나에 백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기반으로, 직사각형 실루엣과 스퀘어 가죽 디테일, 골드 스퀘어 스타드 등이 돋보인다. 카키, 블랙, 로즈 인디언, 그리고 프라시안 블루 컬러 등의 다양한 컬러와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것도 특징이다. 문의 02-3449-5916

발렌티노 라스터드 부츠 발렌티노는 스타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롱부츠와 부티, 27가지 버전의 라스터드 부츠를 선보인다. 광택이 은은한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했으며, 파피라드 형태의 골드 라스터드 디테일을 매력해 모던하면서도 강렬한 루키드 무드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2-2015-4653

몽클레르 롤링 스톤즈 & 몽클레르 몽클레르는 롤링 스톤즈의 50년 역사를 기념해 '롤링 스톤즈 & 몽클레르' 컬렉션을 선보인다. 아이콘적인 허와 입술 로고로 알려진 47지 남성 레더 재질의 '몽클레르 스웨터, 티셔츠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루어졌다. 청담 전문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남성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514-0900

르꼬끄 골프 오프 다운 르꼬끄 골프는 프리미엄 구스다운 아우터인 '오프 다운'을 출시한다. 라인을 잡아주는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함께 구스다운을 충진해 사용에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며, 후드에 라운드 퍼플 트림에 고급스러움을 배가했다. 전국 르꼬



토즈 밴드 & 웨이브 백

토즈는 뮤지션, 영화감독, 포토그래퍼, 배우 등 개성 넘치는 15명의 인물을 선정해, 그들과 함께한 웨이브(Wave) 백의 모습을 담은 포토레이트를 공개했다. 모델이자 아트 디렉터인 줄리아 로아렌트, 뮤지션 첼시 타이일러, 모델이자 배우 메릴 스트림의 딸인 루이자 겸, 배우 리지 재거, 디자이너 안토니 페두치, 배우 테이 팔코, 모델 겸 일러스트레이터 랭글리 폭스 해밀웨이, 생동기 포토그래퍼 줄리아 & 카밀라 벤투라 등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의 컬러를 중요하게 여겨며, 섬세한 미적 감각까지 지닌 독특한 15명의 여성들이 '토즈 밴드 (Toz's Band)'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2016 S/S 토즈 여성 컬렉션 패션쇼장에서 처음 공개된 그들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웨이브 백과 함께한 포토레이트. 웨이브 백은 최상급 소재를 사용하고 토즈의 장인 정신을 반영한 백으로, 가방 전면을 길게 가로지르는 지퍼 클로징과 물결치는 듯한 곡선을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클러처처럼 옮겨뛰거나 손쉽게 드는 등 각각의 개성을 그대로 살린 조프를 통해 새로운 아이콘 백의 탄생을 알렸다. 토즈 공식 홈페이지 (www.tods.com) 또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todsband, #todswavebag, #wavestat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1 토즈 디렉터 줄리아 로아렌트. 2 펠릭스 다테의 웨이브 백을 시크하게 연출했다. 3 2016 퍼스펙티브 웨이브 백을 든 모델 루이자 겸. 4 밴드 디자이너 안토니 페두치와 피터 폰 소제의 웨이브 백. 5 웨이브 백을 든 카밀라 벤투라. 랭글리 폭스 해밀웨이, 베이 리브레, 줄리아 벤투라. 6 피터 폰 소제가 고급스러운 웨이브 백. 7 상어 가죽 텍스처와 흡사한 사파이어 컬러는 다크 네이비 블루 송아지 가죽 웨이브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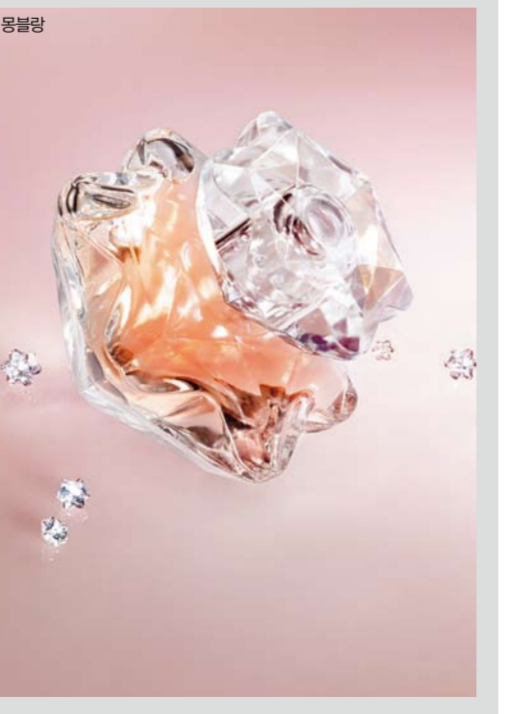
BEAUTY

시슬리 스위트 드 린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시슬리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여성 향수 '스위트 드 린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무수한 별 아래 달빛이 비치는 로맨틱한 무드가 담겨 블루 컬러 보틀에 표현되어 있다. 신뜻한 시트러스와 베르가모트 오렌지 향으로 시작해 미묘한 에센스와 재스민 등 따뜻하고 아늑한 향으로 이어진 후 강한 우디 향과 머스크로 마무리되어 부드러운 면도 매력적인 향을 선사한다. 롯데백화점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 문의 080-549-0216

샤넬 루주 알튀르 샤넬은 홀리데이 한정 신제품이 포함된 '루주 알튀르'를 새롭게 출시한다. 미세한 색소가 고도로 농축되어 있어 단 한 번의 터치로도 강렬한 발색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브라운 핑크 164 인스피레, 블루쉬 레드 컬러의 165 에 블뤼샹트, 그리고 섬세하고 세련된 로지 베이지 162 펜스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80-332-2700

CNP 차면박 앰플 미스트 CNP 차면박은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앰플의 성분은 담은 미스트 2종을 출시한다. 프로폴리스 성분으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해주는 'CNP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와 자연 유래 성분은 함유해 민감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CNP 뮤제너 앰플 미스트'로 이루어졌다.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연약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 문의 080-220-0707

몽블랑 레이디 엠블럼 몽블랑은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키는 보틀의 여성 향수 레이디 엠블럼을 선보인다. 달콤한 사계 어코르, 핑크 그레이프프루츠 향을 시작으로, 우아한 로즈 향과 재스민, 그리고 무개간이 있는 샌들우드, 머스크 향으로 마무리해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80-800-8809



몽블랑

FENDI
TIMEPIECES



**Punctually
Unpredictable**

SELLERIA
Hand-crafted interchangeable straps.